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지역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및 진로준비 행동 특성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및 교육컨설팅전공

강 한 호

2021년 8월

제주지역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및 진로준비 행동 특성

지도교수 양진건

강한호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6월

강한호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21년 8월

【국문초록】

제주지역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및 진로준비 행동 특성

강한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및 교육컨설팅전공

지도교수 양진건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대안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안학교를 선택한 요인과 학교생활 적응 및 진로 준비 행동의 특성을 밝힘으로써 일반학교와 다른 대안교육의 실재를 파악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학생들이 제도권 학교를 거부하고 대안학교를 선택한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의 특성은 무엇인가?

셋째, 대안학교 학생들의 진로 준비 행동의 특성은 무엇인가?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립형 대안학교 중 종교단체 대안학교 2곳의 고등학생 각각 3명과 개인이나 협동조합 형태의 대안학교 1곳의 고등학생 1명을 대상으로 총 7명을 선정하여 심층 면접의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 기간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이며 학생들의 대안학교 선택이유와 학교생활 적응 및 진로 준비 행동 특성에 대한 질적 연구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1차 심층 면접, 이후 유·무선 전화 및 문자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녹음 및 전사하여 현장노트를 작성하였고, 그리고 종합

분석 순으로 연구 문제에 접근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게 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요인으로 주변의 권유보다는 대안학교의 비전과 철학을 이해하고, 스스로 대안학교가 좋아서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 및 학교, 사회에서 학생들이 받아들이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대안학교에 대한 교육적인 자료와 대안교육이 추구하는 교육이념과 가치, 다양한 문화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학생들이 뚜렷한 주관으로 선택할 수 있고, 자신의 올바른 교육적 가치관과 성취욕구에 대한 만족감을 위해서 대안교육에 흥미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대안학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릴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안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교우관계 및 조화로운 학교생활의 만족감을 느끼고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교생활 적응 프로그램과 교육 방법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학생들이 열린 마음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상대에 대한 친밀감 표시와 관심분야를 공유하며, 공동체 의식과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바른생활 교육을 통한 열린 마음으로 친근하게 다가가고, 학생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지를 통한 믿음과 학생들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으로 좋은 스승의 역할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는 편안한 교우관계와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 줄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학생들의 수준과 진로에 맞는 적극적이고 다양한 교육 방법, 그리고 학생들의 진로와 연결된 다양한 프로그램의 경험을 통해 학교생활에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대안학교와 교사는 학생들의 진로 준비 행동을 촉진하고 진로 탐색과 계획, 실천에 대한 노력을 통해 스스로의 진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과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경험을 유도하는 직·간접적 교육프로그램들을 개발·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목표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으로 자료 찾기, 정보 검색 등의 적극적인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진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스스로 진로 탐색에 대한 꾸준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진로 고민에 대한 경청과 진로 준비에 대한

동기부여 및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조력자 및 촉진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는 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진로 선택 경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의 기회 제공과 이로 인한 진로 탐색의 수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상에서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선정할 때 표집 방법 중 확률적 표집 방법이 아니라 임의적인 선택으로 면담 대상자를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내용을 제주지역 대안학교 전체 학생들의 대안학교 선택이유와 학교생활 적응 및 진로 준비 행동 특성을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후속 연구는 제주지역 전체 대안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단의 성격과 규모를 정확히 규정하여 깊이 있고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대안학교를 선택한 요인과 학교생활 적응 및 진로 준비 행동 특성에 대해 학생들의 심층 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의 면담 내용만을 채택하여 분석하였고, 이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사와 학부모의 면담은 제외하고 결론을 도출하였기 때문에 학생, 교사, 학부모의 다양한 관점을 통합하여 연구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분석함으로써 대안학교를 선택한 요인과 학교생활 적응 및 진로 준비 행동 특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현재 제주지역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진로 준비 행동 특성 연구에 있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중요하지만 대안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대한 사례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대안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여 진로 준비 행동 특성을 밝힐 필요가 있다.

주제어 : 대안교육, 대안학교, 학교생활 적응, 진로준비 행동, 질적연구

목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4
3. 용어의 정의	5
II. 이론적 배경	7
1. 대안학교의 이해	7
가. 대안학교의 개념	7
나. 대안학교의 유형	7
다. 대안학교의 순기능과 문제점	9
1) 대안학교의 순기능	9
2) 대안학교의 문제점	10
2. 제주지역 대안학교의 현황	12
가. 공립형 대안학교	12
나. 사립형 대안학교	13
3. 학교생활 적응	18
가. 학교생활 적응의 정의	18
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21
4. 진로준비 행동	23
가. 진로준비 행동의 정의	23
나.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26
III. 연구방법	30
1. 질적연구	30
2. 연구자	31
3. 연구참여자	32

4. 연구대상학교	34
가. 보물섬 학교	34
나. 나무와 숲 학교	36
다. 아이소마 학교	39
5. 연구 절차	41
6. 자료수집 및 분석	41
가. 자료수집	42
나. 자료분석	42
IV. 연구결과 및 해석	45
1. 제도권 학교를 거부하고 대안학교를 선택한 요인	45
가. 가족의 지지	45
나. 제도권 학교문화에 대한 불만	47
다. 대안학교의 매력	48
2.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특성	49
가. 긍정적인 학교문화	50
나. 열린 마음과 기대감	53
다. 학교생활의 다양한 경험	56
3. 대안학교 학생들의 진로준비 행동 특성	61
가. 자기 스스로의 진로 찾기	61
나. 적극적인 진로 찾기의 노력	64
다. 다양한 진로 찾기의 경험	66
라. 성장을 통한 자아실현	69
V. 논의 및 결론	72
1. 요약	72
2. 논의	73
가. 대안학교를 선택한 요인	73
나. 학교생활 적응의 특성	74

다. 진로준비 행동의 특성	76
3. 결론 및 제언	78
참고문헌	81
ABSTRACT	85
<부록 1.> 연구 참가 동의서	89
<부록 2.> 인터뷰 항목	90
<부록 3.> 연구 참여자 기본 정보 질문	91

표 목차

<표 II-1> 2020 제주지역 공립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12
<표 II-2> 2020 제주지역 행복교실(학교 내 대안교실)운영 현황	13
<표 II-3> 2020 제주지역 특별교육 위탁교육기관	14
<표 II-4> 개인 및 협동조합 형태의 학교 현황	16
<표 II-5> 2020 제주지역 종교단체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현황	17
<표 II-6> 2020 제주지역 청소년 야학 현황	17
<표 II-7> Super의 진로발단 단계	25
<표 III-1 > 연구 참여자 기본 정보(학생)	32
<표 III-2 > 연구 참여자 심층 면담 일정	34
<표 III-3 > 보물섬 학교 교과영역	35
<표 III-4 > 보물섬 학교 일과 시간표	36
<표 III-5> 나무와 숲 학교 교육과정 내용	38
<표 III-6 > 나무와 숲 학교 고등부 시간표	38
<표 III-7 > 2021 아이소마 학교 봄학기 시간표	40
<표 III-8 > 연구 일정 및 진행 절차	41
<표 III-9 > 도출된 주제어와 범주	43

그림 목차

[그림 II-1] 진로준비 행동, 취업준비 행동, 직업탐색 활동의 관계	24
[그림 III-1] 나무와 숲 학교 교육 방향	3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사회에서 대안교육은 획일적이고 억압적이던 기존의 학교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특징적인 교육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대안교육은 다양한 시각 또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해될 수 있겠지만 흔히 말하자면 근본적인 교육의 한계를 직시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해결하고자 시도하는 교육으로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 입시를 향한 극심한 교육열로 있던 국내의 교육은 1980년대 학교교육을 구조적으로 개혁하려던 교사 집단의 노력이 좌절되면서 기존의 공교육 체제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풍요로운 문화적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획일적이고 억압적인 학교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해 중도탈락이나 자살을 택하는 경우가 빈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90년대 초에 ‘총체적 교육위기론’을 낳았고, 이로 인해 강력한 교육개혁의 요구로 표출되었다. 국내에서 대안교육은 이러한 와중에 자연발생적으로 분산적으로 추구되기 시작했고, 7·80년대에 시도되었던 민중야학이나 공부방운동 등을 토양으로 하여 90년대 초에 소모임이나 종교기관 등에서 방과 후나 주말 프로그램 또는 방학을 이용한 캠프 형태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 졌다. 이러한 노력들이 점차 하나의 흐름을 이루어 자연스럽게 교류가 이루어졌고, 90년대 중반을 넘으면서 다양한 언론 매체에서 여전히 획일적이고 억압적이던 기존의 학교교육의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들은 아울러 같은 시기에 추진되고 있던 교육개혁 정책과 만나게 된다(이종태, 2007).

교육부는 1996년 ‘학교 중도 탈락자 예방 종합 대책’을 시작으로 대안학교 양성에 나서 1997년 경남 산청의 간디 청소년 학교 개교를 포함한 1998년 특성화고등학교 6개교를 지정하였다. 이후 2001년 대안학교 설립 기준 완화를 발표하였고 학교교육에 적응하기 어렵거나 자기 소질을 개발하기 위해 특별한 교육을 희망하

는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넓힌다는 측면에서 2003년 6월 ‘대안교육 확대 ·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2005년 3월 초·중등교육법 제60조 3항에 대안학교 관련 조항을 추가하여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이 ‘대안학교법’이란 이름으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비인가 대안학교들이 공교육으로 편입 양성화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대안교육백서, 2007).

기존의 선행연구가 제도권 교육의 특성화학교에 대한 초점이 맞춰 이루어졌다면, 제도권 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는 학교로 고유교육이념을 실천하는 변혁적인 대안학교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학교는 제주지역 제도권 밖의 여러 대안학교 중 세 곳의 학교를 선정하여 그 들이 선택한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교생활 적응과 함께 진로준비 행동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시기이며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중요한 때이다. 또한 아동에서 성인으로 전환해 가는 과정에서 신체적 변화와 정서적 혼란 도덕적 변화 사회적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므로 자아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기 쉬운 시기이다. 불분명한 자아의식, 부모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아직은 성인의 권리와 의무를 온전히 가지지 못한 성인과 아동 사이의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방황의 시기이기도 하다. 온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해 나가야 할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건전하고 바르게 성장해야 하는데 한국의 사회적 특성상 지나치게 경쟁적인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과 결과 중심적인 사고가 만연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정규 교육과정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교사와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어 비행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이석형, 2007).

입시 위주로의 숨 막히는 경쟁구도, 지식·암기 중심의 교육, 획일적인 학습 방법, 체제 유지적 교육제도, 비인간화 등의 교육이 지속되고 있어 삶을 촉진시켜 주어야 할 교육이 교육의 본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기에 이와 다른 대안적 교육이념을 추구하는 교육수요자들의 현실적 요구가 있는 한 학교 교육을 통하여 인간의 삶에 행복 추구를 통해 즐거움과 기쁨을 찾고 삶의 본래적 가능성을 체험할 수 있는 대안교육 혹은 대안학교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신혜영, 2003; 김복남, 2009; 권석성, 2017).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시대 비판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한 가지의 방법으로 떠오른 것이 대안학교이다. 대안학교란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삶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로 학교에 대한 시민의 요구에 의해 민간 주도로 생겨났다(이진묵, 2019).

민간 주도의 대안학교는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파생되는 청소년 문제, 예를 들면 학교 폭력, 창의력 저하, 학교 교육 중도 탈락자의 증가와 같이 공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해결 방안으로 정부의 관심을 얻었고 1998년부터 정부의 주도로 인성교육과 자연 현장 실습 등의 체험위주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성화학교라는 명칭으로 대안 학교들이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대안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갖는 성격은 세 가지 정도로 구분지어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보완적 성격’으로 대안학교 도입 초기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가 갖는 특징이고, 다른 하나는 ‘적응적 성격’으로 많은 인가형 대안학교들에서 나타나듯 기존 교육체제에 편입하여 새로운 진학 경로로 변화되고 있는 학교들이 갖는 특징이고, 마지막으로 제도권 밖에서 학교 고유 교육이념을 실천하는 ‘변혁적’인 성격을 갖는 학교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정현정, 2019).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김성기(2003)는 대안학교의 종류를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로 정부에 의해 정규학교로 인가된 대안학교로 일반학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지만 학교의 규모나 교육과정은 일반적인 제도권 학교들과 구분될 수 있다. 둘째로 상설학교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인가 받지 않은 민간 주도의 대안학교로 학교 나름의 교육 이념을 실천하고 자유로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로 민간 주도나 각 시, 도에 설립되어 있는 청소년 수련 시설의 주도로 실행되는 계절제 또는 방과 후 프로그램 형태의 대안 학교 프로그램이 있다.

‘제주’ 지역 대안학교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제주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대안 교육 혹은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열악한 형편이다. 또한 가정형편이나 가정불화, 또는 자신의 질병 등의 원인으로 제주의 많은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다. 학령기에 학업을 중단하고 부적응하거나 또는 개인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기 원하는 제주지역 청소년들에게 체험학습·적성교육·진로지도 등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하고, 인성교육이 최우선이 되는 대안교육이 필요하다(권석성, 2017).

이처럼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12월,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하였다. 「인성교육진흥법」에서는 인성교육의 정의를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며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사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내리고 있다(정지혜, 2020). 본 연구는 정현정(2019)이 밝힌 바와 같이 제주지역 대안학교의 세 가지 유형의 실태 및 형태를 알아보고, 이 세 가지 유형의 대안학교 중 한 유형을 선택한 학생들의 대안학교 선택요인과 학교생활 적응 및 진로준비 행동 특성 분석을 통해 그들이 생각하는 제주지역 대안교육의 과정과 장점 및 단점을 알아보고,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및 진로준비와 대안교육 과정에서 보여주는 일관된 규칙이나 의미 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대안학교들이 일반적인 교육과정의 학교에 비해 대안교육을 선택한 학생들의 생활 적응 및 진로 준비가 그들에게 대안교육을 통해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본 논문에 대한 핵심일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대안학교를 선택한 이유와 입학 후에 학교 교육활동을 통해 구성되어지는 교육적 경험과 가치가 일반학교의 학생들과 비교하여 어떤 특수성과 보편성을 갖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견고한 학력주의 사회의 커다란 구조적 조건하에서 대안학교라는 변혁적 교육체제의 출현이 과연 학생들의 어떠한 교육열을 수용하고 변화시키며, 기존의 보수적인 부모교육의 관행과의 어떠한 교감을 이루며,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지 밝힘으로써 대안학교의 가능성과 한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대안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안학교를 선택한 요인과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및 진로 준비 행동의 특성을 밝힘으로써 일반학교와 다른 대안교육의 실재를 파악하는데 있다.

2. 연구 문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제도권 학교를 거부하고 대안학교를 선택한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의 특성은 무엇인가?

셋째, 대안학교 학생들의 진로준비 행동의 특성은 무엇인가?

3. 용어의 정의

가. 대안학교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대안학교)에 의거하여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를 의미한다.

나. 적응

적응이란 개인이 주변 환경과 능동적인 상호작용으로 보고한 개인이 그와 관계를 맺고 있는 외부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경우에 따라서 환경의 요구에 맞도록 능동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하였다(신지영, 2000). 송미령(2005)은 현대 생활에서의 적응이란 어떠한 환경에 순응하는 것보다는 행동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환경을 이용하고 변화시키는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박아청(1999)은 적응이란 신체적, 사회적 환경과 조화 있는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고, 장애를 극복하고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유기체의 활동 과정 및 변화라고 하였다.

다. 학교생활 적응

김지혜(1998)는 학교생활적응을 학교라는 환경 안에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는 한편, 학교환경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학교환경과 개인 사이에 균형을 이루려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으로 정의했

고, 원용진(1993)은 학교생활에서 학생이 대인관계나 학교의 규준 질서 등에 있어 적절하고 조화 있는 행동을 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자기 스스로도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경우라고 하였다. 임경혁(1994)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교육적 환경을 자신의 욕구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자신이 학교생활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 바람직하게 수용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라. 진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진로(career)의 정의는 개인이 보수 등을 목적으로 한 직업 뿐 아니라 일과 관련된 그의 태도, 동기, 행동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한 개인이 생애 동안 일과 관련해서 경험하고 거쳐 가는 모든 체험을 의미한다 (김계현, 1995).

마.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career preparation behavior)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인지나 태도적 차원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차원을 의미한다. 즉,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 선택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동 및 진로 선택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선택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대안학교의 이해

가. 대안학교의 개념

1990년대 후반에 수요자 중심교육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사고와 학습자 중심의 자율성 존중교육은 더 이상 거역할 수 없는 사회적 추세가 되었다. 이는 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기존 교육체제의 ‘대안’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대안교육을 통해 교육주체의 변화양상과 교육사회적 위상과 의미에 대하여 교육제공자 뿐만 아니라, 교육 주체자, 즉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복락(2009)의 연구에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도 대안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이 생각하는 교육의 의미 부여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대학입시 위주의 학력주의 사회 아래에서 차지하는 대안학교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이는 보수적이고 학력주의적인 교육체제 안에서 대안학교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진전된 논의를 제공하고 자 하는 것이다.

대안학교는 대안교육 운동이 내재한 제도 교육적 지향을 직접적으로 추구하고, 대안교육의 이념이 제도교육 개혁에 어떤 개혁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추론 할 수 있는 교육개혁의 실험적 터전이다. 제도 교육개혁의 주요 난제 중의 하나가 학력주의 사회적 구조 하에서 발현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과잉된 교육열이라고 할 때, 대안학교를 선택하고 그 안의 학생들이 학교생활 적응 및 진로준비 행동에 대한 논의는 대안학교의 교육 개혁적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함에 있어서 주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나. 대안학교의 유형

앞서 김성기(2003)가 대안학교의 종류를 크게 3가지로 밝힌 바와 같이 첫째는 정

부의 의해 정규학교로 인가된 대안학교로 일반학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지만 학교의 규모나 교육과정은 일반적인 제도권 학교들과 구분될 수 가 있고, 둘째는 상설학교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인가 받지 않은 민간 주도의 대안학교로 학교 나름의 교육 이념을 실천하고 자유로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마지막으로 민간 주도나 각 시, 도에 설립되어 있는 청소년 수련 시설의 주도로 실행되는 계절제 또는 방과 후 프로그램 형태의 대안학교 프로그램이 있다.

따라서 그 유형 또한 다양한데, 학력인정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학력인정학교 2015 개정 교육과정 공통 교육과정의 이수, 교원인사, 장학 등 제도적 규제가 따른다. 일반적으로 학업중단을 판단하는 기준도 ‘학력인정학교’에 재학중인가 아닌가이다. 학력인정 여부에 따른 대안학교 유형은 다음과 같다(이진묵, 2019).

1) 특성화학교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로 정규학교이면서 대안학교로 불려왔던 학교들이 바로 특성화학교이다.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현황은 2019년 4월 기준 중학교 17개교(공립 5교, 사립 12교), 고등학교 489개교 중 특성화고(직업)463개교, 특성화고(대안)은 26개교이다(교육부, 2019).

2) 각종학교로서의 대안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대안학교)에 따라 ‘대안학교’가 법정화 되었다. 「대안학교 설립·운영 규정」이 제정되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보다는 완화된 기준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각종학교로서의 대안학교 현황은 2019년 4월 기준 62개 학교이다(교육부, 2018).

3)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평생교육기관”이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 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평생교육시설 중에는 학력이 인정되는 곳과 인정되지 않는 곳이 있다. 이러한 시설들 중에서 중등학교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시설들 몇 곳이 대안학교라 불리고 있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현황은 2019년 12월 30일 기준 47개교이다(교육부, 2019).

4) 민간 대안학교

민간 대안학교는 설립 지역에 따라 전원형과 도시형 대안학교로 구분된다. 학교급 형태에 따라서는 초등형, 중등형, 통합형으로 나누어 진다(김성기, 하봉운, 2008). 이러한 학교들은 평생교육시설로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학력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 현황도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하다. 근래에는 탈북청소년민간교육시설로 분류된 대안학교들도 등장하고 있다.

5) 홈스쿨링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부모에게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공교육의 획일적인 교육에 반대하여 부모들이 아이의 적성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직접 가르치는 것을 홈스쿨링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홈스쿨링을 실시하는 가정이 있지만, 초등교육법 제60조에서는 의무교육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있다.

다. 대안학교 순기능과 문제점

1) 대안학교 순기능

심성보(1998)는 대안학교 공통된 성격과 특성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인간성존중, 개인의 자유 존중, 공동체정신 강조, 경험중시, 교육주체의 원상회복이라고 하였다. 이는 공교육의 획일적이고 입시위주의 교육에만 초점이 집중되어 인간성 교육을 외면하고 있는 것에 비해 대안학교는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인간성과 자유를 추구하는 교육방식을 지향한다.

입시위주의 교육이 만연한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에서 교사의 지위는 지식전달자 수준으로 전락하였는데, 대안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교육의 주체로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독려하고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회복과 교육주체의 원상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공동체 정신을 강조한다는 것은 경쟁의 방식 보다는 협력의 방식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고, 대중매체에 의지하여 빈약한 유사경험을 통한 교육보다는 체험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창의력을 키워나가는 교육을 강조한다.

오늘날 이 시대와 사회는 단순한 지식을 기반한 인간이 아니라 창의적 사고력을 가진 주체적 인간상을 요구한다. 창의력의 향상과 개발은 기존 제도교육의 주입식 교육으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창의력 개발과 향상을 위해서는 대안교육이 추구하는 교육 특성을 통해 미래사회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혜리, 2017).

2) 대안학교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에는 특성화고등학교를 비롯하여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비정규학교 또는 시설들이 많이 있다. 또한 이들이 지향하는 교육목표도, 교육방법도, 교육현실도 다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두 일반화시켜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이 척박한 교육풍토와 사회적 무관심,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희생 속에서 지금의 대안학교 교육의 성과를 일구어내고, 위기를 맞고 있는 공교육체계의 개혁에 많은 영감과 지혜를 주고 있는 대안 교육론자들의 수고와 눈물에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대안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몇 가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곽영호, 2012). 먼저, 대안학교의 위치성을 문제 삼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안학교 하면 농촌(또는 산골)에 위치한 소규모의 기숙학교를 암묵적으로 상징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대로, 대안교육이 지향하는 이념과 방법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건이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일반 학생들의 대안학교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학생들이 자신의 가정과 생활 근거지를 떠나야 하며 기숙사 생활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안교육이 표방하는 이념과는 달리 중산층 부적응아를 위해 기능한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둘째, 대안학교 재정 운영의 영세성을 문제 삼을 수 있다. 대부분의 대안학교는 대안학교에 뜻이 있는 설립자와 교사들의 기꺼운 희생과 헌신성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다. 학생들의 등록금만으로는 학교운영이 어렵고 교사들의 보수문제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에서 교사 인건비가 지급되어 차차 사정이 나아지고 있으나 인건비가 정규 교과 교사에게만 한정되어 있고 대안학교의 성격상 다양한 종류의 교사와 보조자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안학교의 살림이 전체적으로 아주 빈궁하다. 교육청의 지원과 함께 대안학교를 설립한 종교단체의 후원과 일반시민 후원회의 활성화 및 지원비에 대한 감세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곽유정, 2012). 셋째, 재정규모의 영세성은 학교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교원의 안정적 양성, 임용 및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것은 대안학교 교사들의 생계 위협과 이로 인한 높은 이직률을 현실화시키고 있다. 교사 노동조건경시,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는 학교운영은 단기적인 것은 몰라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대안학교의 기능과 학생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은 대안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 양성화되면서 암묵적으로 받아들였던 전제이기도 하다. 대안학교가 지나치게 중도 탈락생 등 부적응아를 중심으로만 문제에 접근했다는 비판인 것이다. 즉 ‘끼’ 있는 학생을 발굴해 교육한다는 적극적 차원보다는 학교부적응 학생의 사회 재적응을 돕는 차원으로 대안교육의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한정시켜 버렸다는 것이다. 다섯째, 대안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라는 형태로 제도권에 진입하면서 대안교육의 유연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것은 이상(理想)이 제도화되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라 할 수 있는데, 교육과정의 작성과 운영에 대한 정부의 간섭, 학교형식의 고집, 건물 속으로의 안주, 형식의 강조가 그 예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안교육과 입시교육과의 절충의 문제가 남아 있다. 대학입시가 이데올로기화하고 있는 우리 교육현실에서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나 교사 모두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금은 여러 대학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의 특별전형을 받아주어 이 문제가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숙고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곽유정, 2012).

2. 제주지역 대안학교의 현황

본 논문에서는 제주지역 대안학교 현황을 공립형 대안학교, 사립형 대안학교로 크게 제시하고, 정현정(2019)이 구분한 세 가지의 성격인 ‘보완적 성격’, ‘적응적 성격’, ‘변혁적 성격’으로 각종 대안교육기관 및 대안학교를 나누어 제시했다.

가. 공립형 대안학교

제주도 내 공립형 대안학교는 ‘보완적 성격’으로 어울림학교(제주학생문화원), 함성교실(탐라교육원)과 ‘적응적 성격’으로는 공립형 대안교육기관에 행복교실(학교 내 대안교실)로 나누어 실태를 조사하고 제시하였다. 각 성격별로 조사대상 교육기관 및 대안학교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보완적 성격’으로 제주도 내 공립형 대안교육기관은 <표 II-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제주학생문화원 “어울림학교”와 탐라교육원 “함성교실”이 있다. “어울림학교”는 2016. 5. 30. 대안교육 운영을 처음 시작으로 현재 교직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총 8명으로 학기당 1회 위탁학생(40명)을 학년 구분하여 학급당 20명 이하로 편성 운영 중이며 2019. 12. 13. 기준 총 125명의 학생이 수료하였다. “함성교실”은 2019. 9. 1. 대안교육 시범운영을 처음 시작으로 17명의 학생이 수료하였고, 현재 교직원 은 9명으로 학기당 1회기별 15명 이내로(4회기 60명) 남·여 및 학년 통합 운영을 예정하고 있다.

<표 II-1> 2020 제주지역 공립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어울림학교(제주학생문화원)	함성교실(탐라교육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대상 - 학기제 운영(1학기: 2,3학년, 2학기: 1,2학년) - 보통교과와 학생 선택을 존중하는 다양한 진로·직업·체험중심의 맞춤형 특성화(대안)교과 편성·운영 - 학교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로 학업중단 위기 및 정서위기 학생의 위탁교육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대상 - 학기제 운영(회기별 15명, 4회기) - 심리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학업중단 예상 중학생을 학교별 추천 후 선별하여 교육과정 운영(개인 및 집단상담, 개인 선택 프로그램, 부모상담 등)

※ 출처: 제주도교육청(2020: 2)의 내용을 표로 정리함.

‘적응적 성격’의 경우에는 현재 제주지역 행복교실(학교 내 대안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27개로 고등학교가 11개, 중학교가 16개로 진로상담, 문화체험, 과제빵, 원예, 연극, 요리, 공예, 스포츠, 미술치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래의 <표 II-2>를 보면 전일제와 반일제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도 전일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2021년 현재 3개의 고등학교 정도이다.

<표 II-2> 2020 제주지역 행복교실(학교 내 대안교실)운영 현황

연번	시도	학교명	학교급	시작연도	참여학생수	운영형태		담당부서
						기본형태	세부형태	
1	제주시	함덕고	고	13년		전일제		학생부
2	서귀포	서귀포산과고	고	15년		전일제		학생부
3	서귀포	성산고	고	15년		전일제		학생부
4	제주시	제주중앙고	고	15년		부분운영제	반일제(오후)	진로부
5	제주시	영주고	고	15년		부분운영제	반일제(오후)	진로부
6	제주시	제주고	고	15년		부분운영제	반일제(오후)	학생부
7	제주시	애월고	고	15년		부분운영제	반일제(오후)	창의인성부
8	서귀포	중문고	고	15년		부분운영제	기수별 운영	Wee클래스
9	제주시	표선고	고	15년		부분운영제	반일제(오후)	학생부
10	서귀포	함림공고	고	17년		부분운영제	반일제(오후)	학생부
11	서귀포	대정여고	고	15년		부분운영제	반일제(오후)	인성교육부
12	서귀포	노형중	중	18년		부분운영제	반일제(오후)	학생부
13	서귀포	세화중	중	15년		부분운영제	반일제(오후)	학생부
14	서귀포	신성여중	중	16년		부분운영제	반일제(오후)	학생부
15	서귀포	아라중	중	17년		부분운영제	반일제(오후)	학생부
16	제주시	오름중	중	15년		부분운영제	반일제(오후)	학생부
17	제주시	제주동중	중	15년		부분운영제	반일제(오후)	혁신연구부
18	제주시	제주서중	중	18년		부분운영제	반일제(오후)	학생부
19	제주시	제주여중	중	18년		부분운영제	반일제(오후)	학생부
20	제주시	제주제일중	중	16년		부분운영제	반일제(오후)	학생부
21	제주시	제주중	중	15년		부분운영제	반일제(오후)	학생부
22	제주시	담라중	중	15년		부분운영제	반일제(오후)	학생부
23	제주시	서귀포대신중	중	15년		부분운영제	반일제(오후)	Wee클래스
24	제주시	서귀포여중	중	15년		부분운영제	반일제(오후)	학생부
25	제주시	서귀포중	중	15년		부분운영제	반일제(오후)	학생부
26	제주시	안덕중	중	16년		부분운영제	반일제(오후)	Wee클래스
27	제주시	중문중	중	18년		부분운영제	반일제(오후)	학생부

※ 출처: 제주도교육청(2020: 2)의 내용을 표로 재구성함.

가. 사립형 대안학교

제주도 내 사립형 대안학교는 ‘보완적 성격’으로 특별교육 위탁교육기관과 ‘변혁적 성격’으로는 개인이나 협동조합 형태의 학교, 종교단체의 대안학교, 청소년 야

학 형태의 학교로 나누어 실태를 조사하고 제시하였다. 각 성격별로 조사대상 교육기관 및 대안학교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보완적 성격’으로 제주도의 사립형 대안교육은 제주도교육청이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실로 지정한 위탁교육기관들 <표 II-3>과 같다.

<표 II-3> 2020 제주지역 특별교육 위탁교육기관

연번	기관명	합숙여부	장소	운영 프로그램
1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비합숙	서귀포시	학생, 가족형 특별교육, 사회봉사
2	미래창의영재교육원	비합숙	서귀포시	학생특별교육
3	성산스쿠버리조트	비합숙	서귀포시	학생특별교육
4	제주인성창의융합교육연구소	비합숙	서귀포시 제주시	학생, 보호자, 가족형 특별교육
5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비합숙	제주시	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사회봉사
6	재단법인 참선재단	비합숙	제주시	학생특별교육
7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비합숙	제주시	학생특별교육, 사회봉사
8	은성종합사회복지관	비합숙	제주시	학생, 보호자, 가족형 특별교육, 사회봉사
9	의료법인연강의료재단	비합숙	제주시	학생특별교육
10	백제힐링센터	비합숙/합숙	제주시	학생특별교육
11	제주청소년꿈키움센터 (한길정보통신학교)	비합숙	제주시	학생특별교육
12	제주일시청소년쉼터	비합숙/합숙	제주시	학생, 보호자, 가족형 특별교육, 사회봉사
13	국제조리직업전문원	비합숙	제주시	학생특별교육, 사회봉사
14	제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비합숙	제주시	보호자특별교육

※ 출처: 제주도교육청(2020: 2)의 내용을 표로 재구성함.

제주도 교육청은 공교육의 문제 속에 나타난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들을 위의 <표 II-3>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14개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백제힐링센터와 제주일시청소년쉼터가 합숙을 함께하고 있다.

특별교육 기관으로서 운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 가해 학생 및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상담·치유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협업 기관으로 운영한다.
2.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의 심리적 치료, 정서적 성장 지원으로 학업 복귀 기회를 제공한다.
3. 학교생활 부적응 및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한 학교적응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4. 자녀에 대한 이해 및 가정교육의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한 보호자 특별교육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를 한다.

또한 특별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특별교육(학교폭력가해학생, 교육활동 침해학생, 학생생활규정 위반학생): 개별 학생 1회 최대 5일(40시간)/1기관, 연간 30일 이내로 운영하고, 재이수인 경우 동일 기관의 이수를 지양한다.(전학 전 특별교육포함) 교육내용으로는 위탁교육기관 프로그램과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계, 학교 부적응 및 학교 폭 력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 보호자특별교육(학교폭력가해학생, 교육활동 침해학생): 전문상담센터(Wee클래스센터 포함)에 서만 시간 단위로 실시한다. 교육내용으로는 학교폭력 전반적 이해를 통한 예방 및 대처방안, 바람직한 학부모상 등 자녀 이해교육법, 가해학생의 심리 이해 및 학교·학부모간의 공동대처방안 등으로 한다.
3. 가족형특별교육(학교폭력가해학생, 교육활동 침해학생): 학생,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실시한다. 교육내용으로는 학교폭력 전반적 이해를 통한 예방 및 대처방안, 자녀·부모 심리 및 상호간 이해 방법 등으로 한다.
4. 사회봉사 조치 학생(학교폭력가해·교육활동침해): 학교에서는 사회봉사를 실시하는 기관과 업무협조를 긴밀히 하고, 각종 확인 자료와 담당자 간의 통신을 사회봉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봉사내용으로는 지역 행정기관에서의 봉사(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유지 등), 공공기관에서의 봉사(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보조 등), 사회복지기관(노인정, 사회복지관 등)에서의 봉사 등의 형태로 진행한다(제주도교육청 2020 특별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계획).

‘변혁적 성격’으로는 개인이나 협동조합 형태의 학교로 제주지역 사립형 대안학교 현황은 2019년에 개교하여 문을 연 한 곳을 포함하여 총 11개이다. 연구자의 조사 대상 학교인 보물섬학교는 제주도 최초의 공동육아 어린이집인 보물섬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모태로 초등 방과 후인 굴렁쇠 그리고 어린문화학교 굴렁쇠로 이어지는 제주 공동육아의 역사를 잇는 초·중등대안학교로 <표 II-4>와 같다.

<표 II-4> 개인 및 협동조합 형태의 학교 현황

연번	학교명	설립연도	교원수	학생수	대상	소재지
1	문화교육들살이 체험학교	2003	5	수시모집	주말,방학체험교실	성산읍,난산리
2	보물섬학교	2011	수시	40	초등,중등	제주시
3	굴메배움터	2009			초등,중등체험교실	제주시
4	방주학교	2014	1	수시모집	주말,계절학교	제주시,조천읍
5	조랑말학교	2014	1	수시모집	주말프로그램	제주시
6	내일학교	2009	2	15	중,고 과정	서귀포,위미리
7	청소년혼디학교	2014	9	5	중고야간과정	제주시
8	간디작은학교낭	2015	9	10	16-18세	제주시,협재리
9	범씨학교	2016	2	수시모집	방과후프로그램	제주시,선흘리
10	제주대안학교	2016	6	수시모집	방과후프로그램	제주시
11	하울람예쉬바	2019	10	16	초,중,고 과정	제주시

‘변혁적 성격’으로 제주지역 종교단체의 대안학교는 아래의 <표 II-5>에서 알 수 있듯이 2020년 개교하여 문을 연 한 곳을 합하여 총 10개이다. 연구자의 조사 대상 학교인 제주시에 있는 나무와 숲 학교와 아이소마 학교는 제주대안교의 협의회 소속으로 검정고시를 시행하고 기독교 정신을 띠고 있지만 교육이념이나 교육과정 등이 많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표 II-5> 2020 제주지역 종교단체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현황

연번	학교명	설립연도	교원수	학생수	대상	종교	소재지
1	생명나무학교	2007	19	45	중,고	기독교	제주시
2	제주해맑음 국제특성화학교	2009	7	50	고	기독교	제주시 한경면
3	제주열방대학 부설기독교학교	2011	17	28	중,고	기독교	제주시
4	글로벌리더스쿨	2011	10	20	초,중,고, 대학	기독교	성산읍 난산리
5	백제사 청소년힐링캠프	2012	수시	수시	중,고	불교	제주시 애월읍
6	CMIC부속 품성사관학교	2016	12	10	초,중,고, 대학	기독교	제주시
7	ISOMQ기독교학교	2017	개교	20	중,고	기독교	제주시
8	나무와 숲 학교	2017	개교	20	초,중,고	기독교	제주시
9	아이소마	2017	13	20	초,중,고	기독교	제주시
10	예주랑	2020	개교	상시	중,고	기독교	제주시

‘변혁적 성격’으로 야학으로는 서귀포오석학교, 동려청소년학교, 제주장애인야간학교 등이 있다. 학생수는 서귀포오석학교와 제주장애인야간학교가 가장 많았고, 이 2곳의 학교는 성인이 많고 청소년은 10명 내 외이다. 이들 학교는 주간에 취업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과 직장인들을 위한 고입, 대입검정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교과목 담당 교사들과 서너 명의 행정인력을 갖추고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표 II-6>과 같다.

<표 II-6> 2020 제주지역 청소년 야학 현황

연번	야학명	설립연도	교원수	학생수	대상	소재지
1	서귀포오석학교	1967	40	150	초,중,고 과정	서귀포
2	동려청소년학교	1975	12	15	25세 미만	제주시
3	제주장애인야간학교	2004	23	140	초,중,고 과정	제주시

대안학교는 공교육으로 대변되는 정규 학교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정규 학교교육에 재학중인 학생들과 많은 측면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신혜영(2003)은 진로에 대한 욕구와 관심이 높은 대안학교 학생들의 개인, 가족, 친구 및 교사, 학교 요인이 진로 태도 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들이 어떤 진로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이지연(2012)은 수도권 내에 소재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위탁형 대안학교와 도시형(미인가)대안학교 재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도를 조사하여 학교적응 하위 영역별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전다솔(2018)은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 요구에 맞추어진 대안학교의 설립이 늘어나면서 그 곳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바람직한 진로준비를 통해 각각에 맞는 직업가치관 확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안학교 청소년의 사회적지지가 진로준비행동과 직업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였으며, 정현정(2019)은 학업중단위기 청소년들의 위탁형 대안학교 위탁 과정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로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들이 위탁형 대안학교로 위탁할 때 겪는 경험을 이해하고 그 본질적인 구조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조지형(2017)은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험에 대한 자료를 면담을 통해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 경험의 의미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바는 학생들이 대안학교를 선택하고 입학 후의 학교생활 적응 및 진로준비 행동을 통해 그들이 생각하는 교육활동 관점에서 기술하고, 이로 인해 제도적인 학력사회구조 아래서 대안학교라는 변혁적인 교육체제의 출현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교육열을 수용하고 변화시키는 것에 집중 조명하며, 또한 기존의 경쟁적이고 제도적인 교육시스템에 견주어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3. 학교생활적응

가. 학교생활 적응의 정의

적응은 유기체가 자기 자신과 환경에 대해 얼마나 만족할 관계를 갖는가를 의미한다. 생활체가 자기 자신과 그 환경 사이에 조화된 관계를 맺도록 자기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든가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교육학 사전, 1965). Allport(1961)는 적응이란 환경에 대한 자발적, 창조적 행동이며 그 필수

조건으로 행동의 결과가 개인에게 안정감을 주고 사회의 가치, 규범, 질서에 합치되는 상태라고 보았으며, Feldman(1989)은 적응을 사람들이 주위 환경으로부터 받는 도전에 대처하고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았다(최문정, 2006: 11에서 재인용). 그리고 김정애(1999)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잘 순응해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자기가 행동의 주체가 되어 독창성을 잃지 않고 자기 실현욕구를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창조적 행위라고 하였다.

이승희(2002)는 적응이란 인간이 자기의 욕구와 환경간의 균형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욕구좌절이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행동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어진 환경에 자신을 맞추는 과정과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되어 있다. 즉, 환경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일치시키는 소극적 의미보다는 환경을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변화시키는 적극적 의미라고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다양한 정의들을 종합하여 보면 적응은 인간이 자신의 생리적이고 심리적인 요구를 합리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환경에 순응하거나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조작하는 행동의 의미로 볼 수 있다. 또한 개인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개인과의 관계, 객관적인 환경과의 조화 또는 그 사회가 가진 규범 질서에 대해 부합되고 일치된 행동을 함으로써 자기의 생활을 원만히 영위하고 바람직하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개인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사회의 질서 규범에 조화되지 못하는 것으로 사회에서 장애가 되고, 개인 자신의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를 부적응(maladjustment)이라고 한다(최문정, 2006).

학교생활적응(school adjustment)은 구체적인 형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개념은 아니며, 이는 복잡한 개념의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의미 속에는 구체적인 근거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이 정의를 내리고 있다.

학교라는 영향 속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욕구를 합리적인 해결 방법으로 만족감을 느끼고 조화로운 관계 유지를 통해 교사와 학생들과 관계가 만족스러운 상태여야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학교생활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한 사회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이미라, 2001). 노숙영(1997)은 학교적응은 학습자가 학교상황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하는 일련

의 어떤 노력으로써, 학습자 자신의 요구를 학교 내의 현실적 가능성에 맞추어 대처하려고 하는 학습자의 시도로 규정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문은식(2002)은 주어진 환경의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것은 개인의 정서적·심리적 안녕을 증진시켜 개인의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학교는 청소년들의 삶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환경으로서의 학교생활을 긍정적인 태도로 나타내는 바람직한 사회·정서적 행동이라 정의하였다. 또한 양순미와 우영주(2003)는 학교적응이란 학생의 모든 행동이 학교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잘 조화되고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시킴으로써 교사와 다른 학생 등 의미 있는 타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가며 학교수업에 적극적이고, 학교규범에 순응하여 독립된 한 개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가는 것으로 보았고, 그리고 청소년이 학교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환경과의 적응을 통해서 조화롭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고 학교생활에 적극적인 자세로 순응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안영복(1984)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교육적 환경을 자신의 욕구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자신이 학교생활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 바람직하게 수용되는 것이라 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학생은 학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 및 동기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학업성적이 향상되고 행동 특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개인의 성장은 물론, 학교와 사회 발전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학교생활적응은 학생이 학교생활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여러 여건을 자신의 욕구와 적절히 조절하고 학교의 여러 가지 조건을 효과적으로 수용하여 학교생활 중에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최문정, 2006). 교육은 크게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동안 교사와 친구, 학교 환경으로부터 받게 되는 모든 교육적인 영향을 학교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넓은 의미로 본다면 비교육적인 영향도 학교생활에 포함된다(교육학대사전, 1992). 그렇게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및 기타 행사활동 등을 통한 다양한 활동에서 자기의 욕구를 올바르게 해결하고 교사 및 학생들과의 관계가 잘 조화되어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을 학교생활적응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최문정, 2006).

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1) 학생변인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변인은 첫 번째로 자아존중감이다. 자아존중감은 아동과 청소년의 성격 발달 연구에서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어왔으며, 아동의 행동이나 성취, 동기, 적응 등 발달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어주경, 1999). 자아존중감은 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 지는데, 개인의 행동 경향은 그의 자아개념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담임교사는 자아개념 상위 학생을 자아개념 하위 학생에 비해 학교에 더 잘 적응한다고 인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밝혔다(장호성, 1987).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학교에서의 적응적 행동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수준과 의미 있는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정유진, 1999).

두 번째는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변인으로 진로결정 수준이다. 청소년기의 발달적 과업은 자아 정체감 확립과 동시에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이루며, 장래의 교육 및 직업적 진로를 결정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다. 특히 자신의 미래에 대한 진로의 결정여부는 학업의 방향으로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학교생활적응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장경문, 2005). 문상근(2005)은 진로결정수준과 학교생활 적응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고 진로미결정 유형과 학교생활 적응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다고 보았다.

세 번째는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변인으로 학년이다. 구자은(2000)은 학년에 따른 학교 적응과 부적응 양상의 차이가 있고 발달 수준에 따른 행동특성이 달라지므로 학교생활적응 정도나 유형도 다를 수 있다고 하였다. 한영숙(2005)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고학년이 될수록 학교의 일반적인 환경, 교사, 수업, 친구, 생활 적응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변인으로 희망학과 여부이다. 학생 개인이 좋아하는 학과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흥미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또는 전공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다른 사람의 권유를

배제한 스스로의 선택이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문지현, 2017). 김현진(2001)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진로 선택이나 흥미와 적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전공 선택은 학교 부적응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다.

2) 가정변인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변인으로 첫 번째는 부모의 관심이다. 가정은 삶의 공동체이며 개인의 사회적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심리적 환경으로서 가족 구성원에게 정서적 안정과 자아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한다. 그리고 가족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자녀가 어떠한 기본적인 행동양식을 습득하여 점차 어떠한 사회적 인간으로 성장해 나가느냐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이효정, 2002).

정영숙·신민섭·설인자(2011)는 부모가 자녀에게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경우 청소년 자녀는 학교생활에 긍정적 적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부모로부터 따뜻한 관심과 보살핌은 청소년 자녀의 높은 학업적 성공, 적절한 도덕적 발달과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반면에 류경희(2003)는 부모로부터 거부당한다고 느끼거나 자녀에 대한 부모의 적대적 태도는 청소년의 낮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두 번째는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변인으로 자율성 부여이다. 장경문(2011)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지금까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자율성 부여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고 보고 있다. Dobkin, p. L., Tremblay, R. E., & Sacchitelle, C(1997: 문지현, 2017: 18에서 재인용)은 자율성 부여는 부모의 양육행동들과 청소년의 적응 및 발달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외국의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서도 대체로 청소년기의 긍정적 발달이나 높은 학업성취 및 낮은 문제행동과 연결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변인으로서는 가족의 화목이다.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및 부부의 갈등 그리고 자녀 간의 갈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갈등은 가정에서 항상 존재하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장한 청소년은 발달 및 인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가족 구성원 간에 사랑과 신뢰에 기초하고 화목하고 개방적인 가정일수록 학교에 더 잘 적응한다고 하였다(심원희, 2003).

3) 학교변인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변인으로 첫 번째는 교사의 학생지지이다. 담임교사와 학생과의 유대관계가 청소년의 학교생활 전체와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구자은, 2000). 문은식(2003)은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가 우호적이고 만족스러울수록, 그리고 학생에 대한 교사의 태도가 지지적일수록 학생들의 학업동기가 긍정적이라고 하였다.

두 번째는 진로준비에 대한 노력이다. 청소년기는 학업을 통해 자신의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 단계이자 탐색의 시기로 볼 수 있다. 최보람(2008)은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준비하는 청소년들은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학교에서의 과업을 충실히 행하며, 높은 학교적응력을 보이게 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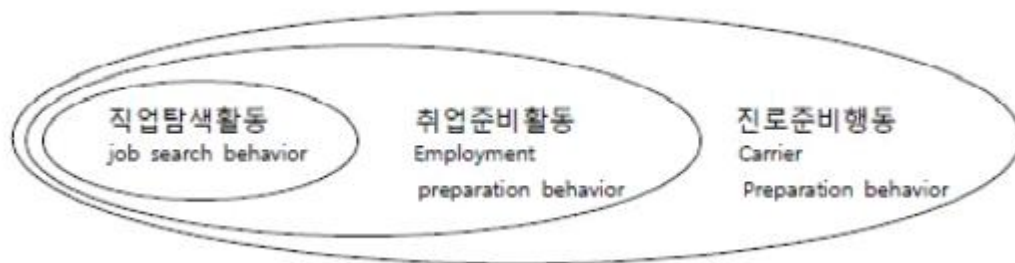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학교시설 만족이다. 학생이 자신이 속한 학교의 환경 및 시설에 만족하는 정도이다. 이재선·나승일(2011)은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므로 학교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4. 진로준비 행동

가. 진로준비 행동의 정의

진로준비 행동의 정의를 박완성(2003)은 진로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인지적 혹은 태도적, 정서적 차원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의 차원을 이야기 한다. 개인이 진로 결정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거나, 그러한 노력이 구체적으로 달성하려는 진로 목표에 충실한 행동인지를 설명하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올바르게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위해 행해야 하는 활동과 진로 결정 이후 그 결정사항을 이루기 위해 실현하는 행동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김계현(1995)은 진로준비 행동을 자기발견 및 진로방향 탐색을 위한 행동과 취업과 관련된 준비 행동을 하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 요소로 보았다. 전

자는 인성 및 적성의 심리검사, 진로 및 취업 관련 정보수집 활동 및 부모님 및 선생님과의 상담 등을 말하며, 후자는 자격증 및 시험 준비, 직업의 취업절차나 기타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면접을 준비하는 등의 직접적인 취업준비행동으로 설명하였다. 김봉환(1997)은 진로준비 행동을 본인에게 맞는 진로분야를 결정하기 위한 탐색과 선택한 진로에 대한 준비활동을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하였으며, 진로준비 행동의 구체적인 하위요소를 크게 자아 및 직업세계 이해를 위한 정보수집활동, 진로목표를 계획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도구를 준비하는 활동, 진로목표의 달성을 위해 실제적인 시간과 개인적인 노력을 투자하는 목표달성 활동으로 3개의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다. 이제경(2004)은 진로준비행동의 정의를 설명하기 위해 취업준비행동과 직업탐색행동의 관계를 다음의 모형을 바탕으로 이야기 하였다.



[그림 II-1] 진로준비 행동, 취업준비 행동, 직업탐색 활동의 관계

※ 출처 이제경(2004)

직업탐색 활동이란 다양한 직업들 중 여러 대안들을 검토하고 확장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결정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이야기하며, 이것은 취업을 하려는 개인 혹은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려는 기업에게는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취업준비 활동이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거나, 일하고 싶은 회사에 취업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의 행동을 하거나, 심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논하고 실천하며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유미정, 2008). 이와 같이 직업탐색 활동과 취업준비 활동 개념이 진로준비 행동과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하지만 진로준비 행동은 진로결정과 준비과정이라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로

전반적인 진로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강재연, 2009).

Super(1990: 박수미, 2016: 15에서 재인용)는 진로발달을 인간의 전생애에 걸쳐 발달하고 변화되며 자아개념과 관련성을 강조하며, 일생을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로 보고, 직업 선택과 적응하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나누고, 이 중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탐색기에는 직업목표를 잠정적으로 공식화하기 때문에 결정화단계라고 명칭 하였다. 이는 아래의 <표 II-7>과 같다.

<표 II-7> Super의 진로발달 단계

구분	내용	
성장기	환상기 (4~10세)	욕구가 지배적이고 환상적인 역할 수행이 중요하게 적용됨
	흥미기 (11~12세)	취향(Likes)이 개인의 목표와 활동의 주요결정이 요인이 됨
	능력기 (13~14세)	능력을 좀 더 중시하고 직업 훈련의 자격 요건을 고려함.
탐색기	학교생활, 여가활동 일을 통해 자아검증·역할수행·직업적 탐색 시도함	
	잠정기 (15~17세)	진로선택에서 자신의 욕구, 흥미, 능력, 자아감 및 성격 등을 고려, 토의나 경험을 통해서 잠정 결정화기 적 직업 선택을 시도함.
	전환기 (18~21세)	개인이 취업을 하거나 취업에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으며, 자신의 자아개념을 실천하려고 구체화기 함에 따라 현실적 요인을 더욱 중요시하게 됨.
	시행기 (22~24세)	자신에게 적합해 보이는 직업을 선택하여 처음으로 직업을 가지게 되며 시험해 봄
확립기	시행기 (25~30세)	자신이 선택한 일의 분야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적합한 직업을 발견하기 전에 한 두 번의 변화를 가져옴. 정착
	안전기 (31~44세)	진로유형이 분명해짐에 따라 이를 안정시키고 직업 세계에서 안정된 위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함. 공고화 발전
유지기	45~64세	직업세계에서 확고한 위치가 확립되어 이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확립된 직업을 따라 계획하게 된다. 이 시기에 개인은 비교적 만족스런 삶을 살아감. 보유 갱신 혁신
쇠퇴기	65세 이후	육체적 정신적 힘이 쇠퇴함에 따라 직업 활동에 변화가 오고 급기야는 중단하게 된다. 새로운 역할을 개발해야 함. 감속 은퇴준비 은퇴생활

상경아 외 2(2001)는 학생들이 이러한 진로준비 행동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찾기 위하여 탐색하고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과 진로준비를 하게 된다. 자기 진로에 대한 탐색 및 계획 수립의 적극적인 노력은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얻게 되고, 자신이 좋아하고 실현 가능한가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우연적이고 즉흥적인 진로결정이 아니라 구체적 정보와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고민 끝에 진로결정을 하게 된다.

나.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본 연구의 진로준비 행동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외적 변인과 내적 변인으로 나뉘어 보았다.

1) 외적 변인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변인으로 첫 번째는 사회적 지지이다. Caplan과 Killilea 및 Abrahams(1976: 이미진, 2012: 31에서 재인용)은 사회적 지지를 개인에게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피드백의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적인 사회적 집합체라고 정의하고, 정보적 지지, 정서적인 지지, 유형적인 자원, 인지적인 안내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는 가족 및 친구 또는 이웃과 기타 사람에 의해 제공된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를 의미하며, 널리 이용되어 왔다. 다양한 연구들에서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심리적 및 신체적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의 결핍은 불안과 우울 등의 심리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박지원, 1985). 김미영(1995)은 사회적 지지를 어떤 개인이나 조직, 집단의 타인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고, 격려해 주고, 긍정적인 도움을 제공 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하였다. Ferry, Fouad, & Smith(2000)는 진로선택 문제는 개인의 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외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고 Chope, R(2001)는 진로와 외적인 영향으로서 사회적 지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개인의 인식 정도가 개인의 진로발달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며 진로결정에서 가족 내의 변화와 일의 상호교환 증가 등이 새로운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이

미진, 2012: 31에서 재인용).

두 번째로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변인으로는 부모의 지지이다. Cobb(1976)는 부모의 지지란 자녀로 하여금 자신이 돌봄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게 하고, 긍지를 가지도록 하며 의사소통과 책임을 갖는 조직망 속의 일원임을 믿도록 하는 정보라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기의 가족의 지지는 청소년들의 자기 존중감과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고 문제행동의 유발을 막는다고 하였다(이미진, 2012: 29에서 재인용). 부모지지만 부모와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얻게 되는 긍정적인 모든 지원을 말하고,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게 해주며, 문제해결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강화해 준다고 보았다(김정애, 1994).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수리(200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부모의 지지와 진로결정 효능감 및 진로준비 행동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으며, 진로준비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안혜경(2008)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지지 하위요인 중 진로관련 모델링과 도구적 조력이 진로준비 행동에 높은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는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변인으로 직업의 가치이다.

장홍근 외(2006)는 일을 소득과 같은 외재적 보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태도로 보았으며, 일에 대한 태도는 직업선택 요인에 대한 인식으로 알아볼 수 있다. 외재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직업선택 시 수입이나 안정성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강현(1998)은 직업의 가치를 개인이 직업 또는 직업적 활동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들에 대하여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는가 하는 것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특정 직업에 관련된 것이 아닌 일반화된 개념으로서 직업 활동에 대한 각 개인의 가치관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변인으로는 외적동기이다. Deci& Ryan,(2000: 이미진, 2012: 14에서 재인용)은 자율성의 수준에 따라 외적 동기는 부과된 조절, 외적 조절, 확인된 조절로 나뉜다고 보았다. 부과된 조절은 외부에서 부과된 가치를 부분적으로 내면화함으로써 불안이나 죄책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기 위한 동기를 의미하며, 외적 조절은 외부의 보상이나 강제를 이유로 하는 동기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조절은 특정 행동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동기요, 확인된 조절의 경우 비교적 높은 자율성을 포함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부과된 가치를 내면화 시킨 동기유형이기 때문에 외적 동기에 속한다고 하였다.

2) 내적 변인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변인으로 첫 번째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다. Betz & Hackett(1981)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을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하였고,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을 주어진 과제나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하고, 행동과 행동변화를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이는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이 과제 시도의 여부와 과제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결정한다는 것이다(이미진, 2012: 7에서 재인용). 지이레(2010)의 연구에서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결정 효능감의 4개 하위 요인이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두 번째는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진로 장벽이다. 진로장벽을 직업이나 진로 설계 및 계획에 있어서 자신의 진로목표 실현을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외적, 내적 요인들을 진로장벽이라 정의하였고, 주로 환경에서 발견될 수 있는 장벽들을 외적장벽으로, 심리적인 측면을 내적장벽으로 설명하였다(손은령, 2001). Swanson & Woitke(1997: 이미진, 2012: 8에서 재인용)의 연구에서는 진로장벽을 개인내부나 환경 속에서 진로향상을 어렵게 하는 사건이나 상황으로 정의함으로써 진로장벽의 개념을 내적장벽과 외적장벽을 포함하였다. 진로장벽을 진로와 관련된 여러 경험들과 취업 및 진학, 승진 및 직업의 지속, 가사와 직장생활의 병행, 직무행동 등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진로선택 및 목표, 포부와 동기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역할행동을 방해하며 다양한 부정적 요인과 상황들로 통칭하였다(이성식, 2007).

이상의 정의들을 종합해 보면 진로장벽은 개인의 진로와 관련된 계획이나 환경

그리고 미래 목표의 설정을 가로막거나 방해하는 모든 장애들을 의미한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과 심리적 요인으로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그 중요성이 있으며 따라서 진로장벽은 주관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정효경, 2009).

세 번째는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진로의사결정 수준이다. 이성애(2006)는 진로결정 수준을 자신의 전공 선택 및 직업선택과 관련한 진로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진행수준과 장래의 진로에 대해 확고히 정한 정도를 일컫는 것으로 정의했으며, 이는 곧 진로 미결정 수준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김봉환(1997)의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을 준거로 한 유형화에 있어서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Crites(1973: 이미진, 2012: 10에서 재인용)는 진로결정을 개인이 그들의 생애를 통해 나타나는 다양한 선택 시점에서 결정하게 되는 결정과정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써, 개인이 특별한 직업에 입문하기 위한 의도의 표현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성취동기이다.

McClelland(1961)는 성취동기를 도전적이고 힘든 문제를 달성해 가는 과정에서 만족을 얻으려는 기대로 정의하였고, Atkinson(1978)은 성취동기를 “성취로부터 자부심을 경험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기대가치모형(Expectancy-valueframework)을 이용하여 성취동기이론을 발전시켰다. 그는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실패에 대한 불안보다 성공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갖는다고 보았으며, 반면에 성취동기가 낮은 사람은 성공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실패에 대한 불안이 크다고 하였다(이미진, 2012: 24에서 재인용). 또한 성취욕구와 외부 환경요인이 상호작용함으로써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강원덕, 2009). 박용현(1982)은 성취동기를 “어떤 훌륭하고 어려운 일을 열심히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신속히 또는 지속적으로 수행하려는 의욕”이라고 정의하였다. 성취동기가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 연구에 따르면 조지혜(2007)는 성취동기의 하위변인 중 책임감이 진로준비 행동을 가장 유의미하게 설명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우연이나 오행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별 흥미를 갖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통제할 수 있는 일에 도전적 흥미를 가지고 모든 책임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진로준비 행동 수준이 높다는 것을 밝혔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대안학교의 구분은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지만, 이 연구의 대상학교는 정현정(2019)의 구분에 입각하여 ‘보완적 성격’, ‘적응적 성격’, ‘변혁적 성격’ 중에서 제도권 밖에서 학교 ‘고유 교육이념’을 실천하는 ‘변혁적’인 성격을 갖는 학교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학교 선정은 제주지역 대안학교 중에서 어느 정도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인지도 및 선호도가 높은 학교를 임의적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학교의 교육이념, 교육목표, 교육과정의 특징 및 방향, 그리고 일과시간표를 살펴보고 연구 참여자의 기본 정보와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질적 연구로 진행하였다.

1. 질적 연구

본 논문의 연구는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학교생활을 통해 어떤 경험을 하는지,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진로 준비 행동이 이루어지고 만족감을 느끼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이에 따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심층 면담의 질적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질적 연구는 현상학과 해석학에 근거하여 객관적 실재가 아닌 구성된 실재를 전제로 한다. 내부자적 관점으로 인간의 의도를 중시하며 귀납적으로 이론을 개발하거나 참여자의 관점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둔다. 소수를 대상으로 문화 기술적 면담과 참여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결과를 해석하며 보고하는 연구 방법이다(조영남, 2001).

대안학교를 선택하게 된 구체적 요인과 그들의 학교생활 적응 및 진로 준비 행동의 특성을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관점으로 표출하기 위해서 일반화하기에 부족한 한계성을 갖지만, 문화 기술연구의 가장 일반적인 연구기법의 하나인 심층

면담을 통해 연구자는 면담 대상자들로부터 주변 세계와 사람, 과거 또는 현재의 사건, 상황들에 대한 감정과 의도, 생각 그리고 해석에 대해서 직접 듣는 조사 연구로 이어질 것이다(김복락, 2009).

2. 연구자

본 연구자는 4년제 체육교육과를 졸업하고 현재 8년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중학교 체육교사 3년차가 되던 해, 깊이 있는 교육학문을 배우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였고, 교육학문에 대한 배움과 제도권 교육현장에서 체육교사를 병행하며 학생들의 배움이 인성교육보다는 지식위주의 암기교육, 획일적인 평가 및 입시위주의 교육이 강조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학생들이 교육 주체로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경쟁보다는 협동을 강조하며, 교과지식 보다는 스스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학습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고민하게 되었다. 또한 연구자는 기존의 일반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대안학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기존의 획일화된 교육과정과 다른 다양한 교육 형태로 대안적 교육을 늘 생각하고 있었고, 모든 학생들의 개인의 특성에 따른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교육을 추구하며 학습이 이루어지는 대안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필요함을 가지게 되었다. 지식 위주의 교육으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학업에 열중하며 이에 따른 스트레스를 겪는 학생들을 상담을 통해 확인하게 되었고, 과연 이 학생들이 꼭 경쟁을 해야만 하나 또는 즐겁고 행복한 학업을 통해 스트레스 없이 학교생활의 만족을 가지고 올 수 없는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대안학교 학생의 경험에 기초한 실제와 요구를 분석하고, 연구결과를 통해 대안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이 생각하는 교육의 학교생활 적응 및 진로 준비 행동 특성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써 일반 학교와 다른 대안교육의 실재를 파악하는데 있다.

3. 연구 참여자

가. 연구 참여자의 특성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립형 대안학교 중 종교단체 대안학교 2곳의 고등학생 각각 3명과 개인이나 협동조합 형태의 대안학교 1곳의 고등학생 1명 총 7명을 대상으로 임의표집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기본 정보 <표 III-1>과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III-1> 연구 참여자 기본 정보

순서	성명	성별	연령	학년	재학기간	거주지역	가족관계
1	A 학생	여	16	고1	2년	제주시	부,모
2	B 학생	남	16	고1	1년	서귀포시	부,모
3	C 학생	여	17	고2	1개월	제주시	부,모
4	D 학생	남	17	고2	4년	제주시	부, 누나
5	E 학생	여	17	고1	3년	제주시	부
6	F 학생	남	19	고3	5년	제주시	부,모
7	G 학생	여	18	고3	8년	제주시	부,모

1) A 학생

본 학생은 제주도에서 태어났으며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으로 중학교에 1학년까지 다니고 2학년 때 언니의 영향으로 대안학교에 입학했다. 중학교에서 공부에 어려움이 있었고, 소극적인 성격이었지만 대안학교 입학 후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하고, 삶의 제일 중요한 가치를 행복이라고 응답하였다.

2) B 학생

본 학생은 육지에서 4년 전에 국제학교에 다니기 위해 제주도에 왔으며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2020년 10월에 부모님의 권유로 대안학교에 입학했다. 수학 과목을 좋아하기 때문에 소프트개발, 보드게임 등의 수학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3) C 학생

본 학생은 육지에서 중학교 1학년 2학기 후반기에 자퇴를 하고 다시 검정고시 패스를 통

해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중 제주도에 이사를 와 대안학교에 입학했다. 심리에 관심이 많아서 현재 상담심리전문가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4) D 학생

본 학생은 2016년에 중학교 1학년까지 일반 중학교를 다니고 엄마의 추천으로 2017년 3월에 대안학교에 입학했다. 리듬게임을 좋아하고 삶의 중요한 가치가 '재미'라고 하여 앞으로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고 하였다.

5) E 학생

본 학생은 육지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2017년 3월에 대안학교에 입학했다. 입학 당시 부모님의 반대는 있었지만 초등학교 때 갔던 대안학교 캠프의 좋은 기억과 누나의 추천에 대한 영향이 컸다고 하였고, 현재 자신의 진로를 계속 찾는 중이라고 응답하였다.

6) F 학생

본 학생은 국제학교를 다니다가 국제학교 교장선생님이 할머니에게 추천을 했고, 이로 인해 2019년 대안학교에 입학했다. 이 후 유학을 간다고 하였고, 미술에 관심이 많아 캐릭터 디자이너 및 포스터와 관련된 진로를 생각 중이라고 응답하였다.

7) G 학생

본 학생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 일반 초등학교를 다니고 이 후 자신이 다녔던 교육 공동체인 문화학교에 대한 좋은 기억과 부모님의 권유로 대안학교에 입학했다. 예체능 관련 사진 영상에 관심이 많아 학교에서 기획하는 행사에 그런 역할들을 맡으면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나. 심층면담 일정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 면담은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각자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및 내용은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연구 참여자 심층 면담 일정

구분	시간	참여자	방법	장소	내용
1차	2021.03.25.(목) 10:00 ~ 10:30	A 학생	녹음	제주시 나무와 숲 학교	대안학교 선택요인, 학교생활 적응에 필요한 요인 및 학생의 역할,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는 부분, 진로준비 행동에 필요한 요인 및 학생의 역할, 학생의 진로준비 행동에 도움이 되는 부분, 졸업 후의 성취감 등
	2021.03.25.(목) 10:40 ~ 11:10	B 학생	녹음	제주시 나무와 숲 학교	
	2021.03.25.(목) 11:20 ~ 12:00	C 학생	녹음	제주시 나무와 숲 학교	
	2021.03.30.(화) 18:00 ~ 18:30	D 학생	녹음	제주시 아이소마 학교	
	2021.03.30.(화) 18:40 ~ 19:10	E 학생	녹음	제주시 아이소마 학교	
	2021.03.30.(화) 19:20 ~ 19:50	F 학생	녹음	제주시 아이소마 학교	
	2021.04.15.(목) 18:00 ~ 18:30	G 학생	녹음	제주시 보물섬 학교	

4. 연구 대상 학교

가. 보물섬 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위치한 보물섬학교는 제주도 최초의 공동육아 어린이 집인 보물섬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모태로 초등 방과 후인 굴렁쇠, 그리고 어린이 문화학교 굴렁쇠로 이어지는 제주 공동육아의 역사를 잇는 공동육아 대안학교이다. “함께 아이를 키운다.” “삶과 교육은 분리되지 않는다.” 라는 공동육아 정신과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대상화하지 않고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할 동등한 주체로 바라보고 실천하는 생명 중심의 사상을 기본 교육이념으로 하고 있다.

교육 목표는 “내 삶의 주인, 사회의 주인으로 성장한다.” “평화 실현과 생명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간다.” “서로 돕고 나누는 삶을 통해 배움의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간의 유기적 관계를 중시하는 관계중심의 통합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둘째. 삶이 곧 교육인 생활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셋째. 아동의 자유와 개성을 중시하고 키워가는 아동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넷째.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발현적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의 흐름은 전학년(1학년~9학년)은 통합 프로젝트 중심 속에 저학년(1학년~3학년)은 비구조적 학습과정, 배움의 기초인 관계, 생활, 표현(놀이, 예술)중심 학습과정, 경험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중학년(4학년~5학년)은 구조적 학습과정, 탐구학습, 보물섬의 교육 가치를 내면화 하는 과정으로 이뤄지며, 고학년(6학년~9학년)은 협력적 학습과정, 자기성찰과 삶의 주인 되기, 삶의 길 찾기의 과정으로 운영하고, 청소년과정은 인문, 사회과학 학습을 통한 세상의 이해와 사회참여로 변화의 힘 키우기, 노동과 여행을 통한 자립의 힘 키우기 과정으로 편성·운영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교과영역은 <표 III-3>과 같다.

<표 III-3> 보물섬 학교 교과영역

		교과 영역		교과 내용	
보물섬 학교	생활 교과	자유로운 생활(주인된 삶)		열기, 단기, 덧밭, 놀이, 여행, 나들이 주제 활동, 방 생활(관계, 정리정돈, 청소, 버스타기, 컴퓨터 사용, 생활도우미, 생활약속 등)	
		문예가 살아있는 생활(풍요로운 삶)			
		즐거운 생활(배움과 놀이가 일치하는 삶)			
	기본 교과	기초 교과	세상을 이해하는 기보적인 교과		우리말 우리글, 아름다운 수, 생활과학
		인문 교과	공동육아의 철학과 가치관을 만들며 세상과 삶의 이치를 이해하고 행복한 삶의 목표를 세워가는 교과		철학, 역사, 우리가 사는 세상, 주제를론
		예술 교과	삶을 즐겁고 풍요롭게 하고 행복한 삶의 모습을 문예로 창조하는 교과		음악, 악기연주, 미술, 목공, 바느질, 몸놀이, 마당극
		선택 교과	교사 및 아이들의 다양한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는 교과		풍물, 주계활동
		외국어 교과	다양한 소통과 경험을 위한 외국어교육		영어, 일어
	프로젝트 교과	생활에서 나서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프로젝트 교육과정을 통해 주인된 삶의 태도를 배워 간다.			아이들의 다양한 호기심과 요구가 적극 반영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프로젝트를 통해 건강한 보물섬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간다. 프로젝트를 통해 세상을 인식하고, 그 인식을 공유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세상의 보편적 진리를 알아간다.
		학생 자치회	생활과 배움의 과정에서 나서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인 된 삶의 모습을 배워간다.		
자치회의, 긴급회의, 방 모듬, 물물교관 장터, 학교신문 만들기, 동아리활동					

이를 토대로 하루 일과 시간표는 다음 <표 III-4>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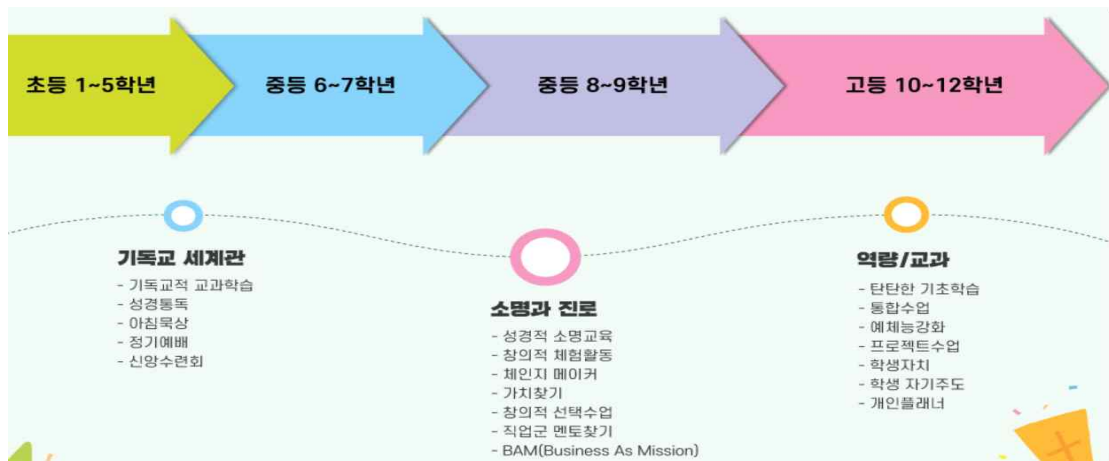
<표 III-4> 보물섬 학교 일과시간표

시간	교실	일	화	수	목	금							
아침체조 (08:30~08:50)	새세상방	전체열기	아침운동			외부청소							
	제라진방												
	요망진방												
	아꼬운방												
열기 (09:00~09:30)	새세상방	철학으로 아침 열기			방 모듬	아침 열기							
	제라진방	긴 열기	열기										
	요망진방	과학이야기(달 관찰, 우수 이야기 등)											
	아꼬운방	긴 열기	우리 문화 이야기										
오전 (09:30~11:30)	새세상방	영상미디어 [지한]	진료(9-) [주작]	영어 (7,8) (09:30~ 11:30) [쑥대님]	아름다운 수(8) [주작]	책방 나들이 (9-)	역사[주작]	한자 (-10:30) 일본어 (10:30- (8) [꽃바다]	지역 사회 나들이 (9-청) [주작]				
	제라진방	긴열기(-10:00) [광대]/요가 명상(10:00-11:30) [하늘마음]	풍물 (6)	놀이(7) (10:30~ 11:30) [광대]	아름다운 수[햇살]		역사(7) [광대]	역사(6) [쑥대님]	한자(6,7) (-10:30) [꽃바다] 방모듬 I (10:30-) [광대]				
	요망진방	텃밭 활동[쑥대님, 봄, 별사탕]	풍물	우리말 우리글		역사(5) [쑥대님]	함께 읽기 (4)[봄]	나들이 이야기[봄] 방모듬[봄]					
	아꼬운방			풍물(3) / 우리말우리글(1,2) [별사탕]	우리말, 우리글(분리) [쑥대님, 별사탕] 아름다운 수(분리) [쑥대님, 별사탕]	방모듬[별사탕] 주제활동[별사탕]	나들이[별사탕]						
점심시간(11:30~13:00)													
오후 (13:00~15:00)	새세상방	자치회의 [광대]	영화[주작]		우리말 우리글 (7-9)	우리말 우리글 (6)[광대]	건축 목공 (통합 프로젝트) [주작, 광대]	인권수업[봄] 방모듬 II (-14:00) [광대] 자전거프로젝트 (14:00~)[광대]					
	제라진방		주제 활동 [광대]	음악 [러피]				아름다운 수[하늘마음]	생각의 힘[봄]	마을 나들이[봄32]	달기 (13:00~13:30)		
	요망진방		안정한 생활[별사탕]								손끝 활동[별사탕]	목공(13:30-) [주작]	
	아꼬운방		만다라[하늘마음]									아마지원수업 (13:00~15:00)	
오후2 (15:00~16:30)	새세상방	자기주도[주작]	영화[주작]		우리말 우리글 (7-9)	놀이(6) [광대]	건축목공 (통합 프로젝트) [주작, 광대]	인권 수업(-16:00)[봄] 자전거 프로젝트[광대]					
	제라진방	책읽기(-16:00)[봄]			간식/청소/달기(14:00-15:30)								
	요망진방												
	아꼬운방												
간식 / 청소 / 달기(15:00~16:30)													

나. 나무와 숲 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위치한 나무와 숲 학교는 2017년 어깨동무 학교로 시작하여 2020년부터 제주지역 교회와 연합하여 초등, 중등, 고등학교로 이루어진 사회적 협동조합 제주교육 선교공동체<나무와 숲> 산하의 기독교 대안학교이다. 학교 교육철학에 따라 일관되고 연속적인 무학년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통합학교로, 비인가 대안학교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통학형 학교로 검정고시를 필수로 통

과해야 하지만 입시 위주의 공부가 아닌 ‘바른 가치’를 가진 학생으로 자라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교육목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중심으로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양육한다.” “인문학교육을 바탕으로 올바른 세상(이웃)과 공감하는 사람으로 양육한다.” “성경적 소명관을 토대로 삶의 주도성을 가진 사람으로 양육한다.” 등의 ‘전인적 신앙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육 방향은 <그림 III-1>과 같다.



[그림 III-1] 나무와 숲 학교 교육 방향

교과추진 방향은 활동중심의 기초교과, 쓰기/읽기의 역량강화, 참여를 이끌어내는 프로젝트 수업, 자기표현의 예체능을 통해서 개별성 및 공동체성을 강조하며, 교육중점 사항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인문학교육은 읽기와 쓰기의 독서교육과, 리딩레이스, 에세이쓰기, 가치찾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기개발, 봉사 신체단련, 탐험을 할 수 있는 청소년포상제와 다양한 예체능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학생 자기주도는 학생자치, 개인 플래너, 동아리/학습계획, 학생개설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상과의 소통은 체인지 메이커, 환경, 평화, 역사 프로젝트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서로 유기적인 교육의 관계로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내용 편성은 다음의 <표 III-5>과 같다.

<표 III-5> 나무와 숲 학교 교육과정 내용

		교육과정	
나무와 숲 학교	기독교세계관	신앙기초, 성경이해, 환경, 통일 등	
	국어	기초학습, 현대문학/고전문학, 토론, 슬로우리딩	
	영어	sot(초,중등), tesol(고등), 문법, 원어민회화	
	수학	기초학습, 실용수학, 심화과정	
	과학	기초학습, 과학실습, 심화과정	
	사회	sot(초,중등), 심화과정(고등)	
	역사	한국사, 한국 근대사, 역사탐방	
	예체능	실용음악, 합창, 생활체육, 창의미술	
	창의적활동	학생주도동아리, PBL, 체인지메이커	
	체험활동	트레킹, 봉사활동, 클라이밍, 자연생태 및 노작	

나무와 숲 학교 고등부 시간표는 다음 <표 III-6>와 같다.

<표 III-6> 나무와 숲 학교 고등부 시간표

요일	월		화		수		목		금	
	10학년	11, 12학년	10학년	11.12학년	10학년	11.12학년	10학년	11.12학년	10학년	11.12학년
0교시 (09:30-09:50)	경건회		경건회		경건회		경건회		경건회	
1교시 (10:00-10:45)	소명과 진로 (월 1회 전국 학생회의)		고등 수학A	영어	고등수 학A	자기 주도 선택 수업	성경하브루타		고등 수학A	영어
2교시 (10:55-11:40)			한국사	문학/비문학			하브루타, 액션러닝		기독교세계관	
3교시 (11:50-12:35)	국어	고등 수학B	영어	통합과 학B	채플				통합 사회	문학/비문학
(12:35-13:35)	점 심 시 간									
4교시 (13:35-14:20)	체육		음악		체험 (꿈드림10회, 자체8회)		통합 과학A	고등 수학B	영어/영어하브루타	영어하브루타
5교시 (14:30-15:15)	통합 과학A	자기 주도 선택 수업	MBA/코칭		동아리		국어	통합 과학B	에세이쓰기	
6교시 (15:25-16:10)							미술		국어	자기 주도 선택 수업
7교시 (16:20-17:05)	학습자 개설수업						청소년 포상제		고등 수학B	
8교시 (17:15-17:30)							청소년 포상제			

다. 아이소마 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위치한 아이소마 학교는 2017년 3월에 설립하여 초등부 11세~13세, 중등부 14세~16세, 고등부 17세~19세를 교육대상으로 한다. 교육 목표는 기독교 철학을 기반으로 한 지성, 인성, 감성의 성장과 학생의 적성에 맞는 진로 탐색과 진학지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이소마 학교의 교육과정은 전 교직원이 전임 교사와 멘토 교사로 구성되어 학년이나 계열을 두지 않고 배우는 무학년제 교육과정으로 중·고등부 14세~19세의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계획, 학습 수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율할 수 있으며, 통학형과 기숙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2020학년 신학기에는 초등 고학년(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 통학부가 개설되었고, 수업은 공동체 교과목과 수준별 교과 수업으로 진행한다. 교과 수업은 주로 소그룹으로 구성되어 진행되며, 교과 커리큘럼 외 학생들의 자기계발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며,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과 필수

- 기초 과목의 심층적 이해 및 실력 향상(국어/영어/수학)
- 예체능 과목을 통한 체력 단련 및 감성 함양(미술/음악/체육)
- 그룹 학습을 통한 창의력 개발(창의수학)

2. 교과 선택

- 진학 계획에 맞춘 수준별 학습(사회/과학/역사)
- 실용 회화 중심의 외국어 학습(영어회화/중국어회화)
- IT 자격증 취득(IT 실무 과정)

3. 공통 필수

-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발견(재량학습)
- 기독교 철학을 기반으로 공동체성 함양(채플, 공동체 멘토링)
- 이해력과 표현력 향상(독서, 작문, 세계관, 현장체험)

아이소마 학교 2021학년도 시간표는 다음 <표 III-7>과 같다.

<표 III-7> 아이소마 학교 2021년 봄학기 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1교시 (09:00-09:50)	Play time		음악	독서		독서	국어 (고)	수학 (중)
2교시 (10:00-10:50)	영어 (중)	과학 (고)	국사	영어 (중)	과학 (고)	음악	국어 (중)	수학 (고)
3교시 (11:00-11:50)	영어 (고)	과학 (중)	체육	영어 (고)	과학 (중)	체육	공동체 회의	
4교시 (13:30-14:20)	현장 체험	재량 학습	전략적 공부습관 (국어/사회/사)	소통하는 창의 미술 카페테리아		전략적 공부습관 (수학/과학)	채플	
5교시 (14:30-15:20)							반별 피드백 및 전체 정리	
6교시 (15:30-16:20)		기독교 교세 계관	국어 (고)	사회 (중)	사회 (고)	수학 (중)	사회 (중)	수학 (고)
7교시 (16:30-17:20)			국어 (중)	사회 (고)	전략적 공부습관 (영어)		국사	

위의 <표 III-7> 내용은 기본 교과는 국, 영, 수, 사, 과, 사이며 예체능은 음악, 미술, 체육으로 편성 운영되었다. 필수 교양은 독서와 기독교 세계관이며 공동체 인성과 멤버십을 위한 공동체 멘토링, 플레이타임으로 편성되었다. 진로 수업, 현장 체험, 채플, 진학지도를 위한 전략적 공부습관 과목으로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은 각 과목 중 본인의 진로와 진학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여 개별 시간표를 설정하며, 학기마다 변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연구대상 학교인 보물섬 학교, 나무와 숲 학교, 아이소마 학교는 공통적으로 각 교육과정을 통해 기초교육이라는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교육이 중요시 된다는 점을 보물섬학교 <표 III-3>과 나무와 숲 학교 <표 III-5>, 그리고 아이소마 학교 교육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전 세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학교의 모든 교육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과제로 볼 수 있다.

또한 교과를 토대로 다양한 체험활동의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물섬 학교는 기본교과와 함께 전 학년 통합 프로젝트 중심으로 경험중심 교육과 탐구학습, 협력학습과 사회과학 학습 등의 교육과정 운영을 볼 수 있다. 나무와 숲 학교는 아이소마 학교와 같은 무학년제 교육과정으로 활동중심의 프로젝트 수업과 예체능을 통한 개인 및 공동체를 강조하고, 학생주도 동아리, PBL, 트레킹, 봉사활동 등의 창의적 체험활동이 활발하게 운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아이소마 학교는 무학년제 교육과정으로 기본교과 외 예체능 및

공동체 인성과 멤버십, 진로수업과 현장체험 등의 활발한 체험적인 교육활동을 볼 수 있다.

5. 연구 절차

본 연구의 기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연구는 제주지역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및 진로준비 행동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1차 심층 면접, 이후 유·무선 전화 및 문자, 그리고 종합분석 순으로 활동을 진행하였는데 다음 <표 III-8>과 같다.

<표 III-8> 연구 일정 및 진행 절차

단 계	기 간	세부사항
준비단계	2020.6. ~ 202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대안교육 기관 및 대안학교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기타 자료 수집·분석 ◦ 연구할 대안학교 교육과정 점검 (연간계획안, 주간계획안, 일일 교수·학습 계획안)
면담계획	2021.3. ~ 202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대안학교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기타 자료를 토대로 1차 면담 계획하기 및 심층면담 구성 ◦ 연구 참여자와의 래포형성 ◦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 설명 및 이해, 심층 면담에 대한 협조 안내
1차 면담 및 분석	2021.4. ~ 202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참여자 1차 면담 ◦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구한 후 면담 내용 녹음 ◦ 면담과 관련한 자료 수집 및 분석 ◦ 1차 면담 내용 전사·분석 ◦ 1차 면담 전사내용 분석 및 연구참여자 확인 ◦ 교육전문가의 자문
종합분석	202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담 자료 및 기타 자료를 통한 종합분석 및 연구 참여자의 확인

6. 자료 수집 및 분석

가.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대안학교에 대한 이해와 실체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이들의 경험에 기반한 질적 연구를 위하여 연구 참여자와 면대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내용의 질문지 구성은 다음과 같다. 질문은 크게 대안학교를 선택한 요인, 학교생활 적응에 필요한 요인, 학교생활 적응에 학생의 역할,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는 부분, 진로 준비 행동에 필요한 요인, 진로 준비 행동에 학생의 역할, 학생의 진로준비 행동에 도움이 되는 부분, 졸업 후 성취감 등으로 이루어 졌다. 인터뷰 진행 상황에 따라서 반구조화 면담법인 추가적인 질문도 준비하였다. 인터뷰를 실시하기 전 연구 참여들에게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질문지를 메일로 안내하였고,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인터뷰 모든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 후 녹음된 자료를 반복해서 청취하며 전사하였고, 전사한 기록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은 문자 및 전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나.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전사한 인터뷰 내용을 반복적으로 청취하면서 개방 코딩, 축 코딩하여 아래와 같이 분석단계를 거쳤다.

첫 번째 개방 코딩(Open Coding)은 개념 발견을 목적으로, 속성과 차원에 따라 개념에 이름을 붙이면서 면담 내용을 해체하는 과정이다. 축 코딩(Axial Coding)은 개방 코딩에서 분석한 개념들을 다시 재조합하는 과정으로 개념들의 관련성에 따라 하위 범주들로 연결시키면서 개념들이 어떻게 교차되고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단계이다. 이후 이들 하위범주들을 범주화 하여 정교화 하였다(박은승, 2015).

본 연구에서 개방코딩(Open Coding)으로 도출된 개념의 결과는 모두 90개였다. 이러한 개념을 추상화 해 추출한 하위 범주는 30개였고, 이에 따른 10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이 후 축 코딩(Axial Coding)에서는 개방 코딩을 통한 자료들을 다시 조합하고 범주와 하위범주를 연결하는 과정을 통해 조금 더 명확하게 범주들을 진술해 나갔다. 도출된 주제어와 범주는 아래의 <표 III-9>와 같다.

<표 III-9> 도출된 주제어와 범주

구분	개방코딩 (주제어)	축코딩 (하위 범주)	범주화
대안 학교 선택 요인	부모님의 권유 (A학생)	가족의 권유	1. 가족의 지지
	부모님의 권유 (B학생)		
	부모님의 권유 (C학생)		
	부모님의 추천 (D학생)		
	누나의 추천 (E학생)		
	부모님의 권유 (G학생)		
	교장선생님의 추천 (F학생)	교장의 추천	2. 제도권 학교문화에 대한 불만
	학업에 대한 걱정 (A학생)	학업에 대한 문제	
	학력지상주의에 대한 불만 (B학생)		
	학교수업에 대한 불만 (C학생)		
	스트레스에 대한 학업의 무력감 (C학생)		
	교사, 학생의 무관심 (C학생)	학교생활의 문제	
	교우관계 불만 (F학생)		
	함께하는 문화 (D학생)		
학교의 만족 (F학생)			
학교의 좋은 문화 (F학생)	대안학교의 좋은 문화	4. 긍정적인 학교문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 (A학생)	교우관계 및 공동체 의식		
공동체 (C학생)			
적극적인 친밀감 표시 (D학생)			
친해지기 위한 노력 (E학생)			
편안한 교우관계 (F학생)			
교우관계의 중요성 (G학생)			
대안학교의 고정관념 버리기 (A학생)	대안학교의 긍정적인 문화수용		
재미있는 수업환경 (B학생)			
학교의 긍정적인 문화수용 (D학생)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부담감 줄이기 (E학생)			
상호 존중하는 관계 (C학생)	교사, 학생의 신뢰		
교사, 학생에 대한 믿음 (F학생)			
마음을 열고 다가가기 (C학생)			
상대에 대한 관심 갖기 (D학생)			
관심 분야 공유하기 (E학생)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기	5. 열린 마음과 기대감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F학생)			
열린 마음 갖기 (G학생)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 극복하기 (F학생)			
이끌어가는 리더십 (A학생)	리더십		
자신의 책임감 (B학생)			
학교에 대한 설렘 갖기 (G학생)	학교에 대한 기대감		
배움에 대한 노력 (C학생)			
바른생활 교육 (A학생)	함께하는 학교생활		6. 학교생활의 다양한 경험
학교생활 만족 (B학생)			
함께하는 기숙사 생활 (D학생)			
함께하는 기숙사 생활 (F학생)			
주체적인 생활 (G학생)	함께하는 학교생활		
맞춤형 공부 (A학생)			
학업과 진로의 연계성 (C학생)		교육방법	
적극적인 교육방법 (F학생)			
다양한 프로그램의 경험 (C학생)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 (C학생)			
자신의 진로와 연결된 프로그램 (D학생)			

	체험을 통해 친해지기 (E학생)		
	수업 선택의 자율성 (B학생)	학업의 자율성	
	자율적인 수업 (E학생)		
	자율적인 교육과정 (F학생)		
	좋은 스승과 만남 (E학생)	스승과 만남	
진로 준비 행동	자신의 진로 고민 (B학생)	자신의 진로 찾기	7. 자기 스스로의 진로 찾기
	자신의 진로에 대한 준비 (C학생)		
	자신의 목표에 대한 노력 (C학생)		
	학업준비와 진로탐색 (D학생)		
	다양한 경험을 통한 진로찾기 (E학생)		
	다양한 경험 (G학생)		
	동기부여 (A학생)	동기부여 및 자신감	
	할 수 있다는 자신감 (F학생)		
	부모님의 지지 (C학생)	부모님의 지지	
	자신의 진로 찾기에 대한 노력 (A학생)	진로 찾기에 대한 노력	8. 적극적인 진로 찾기의 노력
	자신의 진로 찾기에 대한 노력 (B학생)		
	자신의 적극적인 진로탐색 (D학생)		
	자신의 진로 준비에 대한 노력 (F학생)		
	자신의 목표에 대한 꾸준한 노력 (C학생)	목표에 대한 노력	
	자신의 진로에 대한 정보 검색 (E학생)	진로에 대한 정보 검색	
	새로운 경험에 대한 도전 (G학생)	새로운 경험의 도전	
	다양한 프로그램의 경험 (A학생)	다양한 프로그램의 경험	9. 다양한 진로 찾기의 경험
	다양한 프로그램의 경험 (C학생)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진로탐색 (D학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만남 (E학생)		
다양한 진로 정보 획득 (E학생)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진로 찾기 (F학생)			
다양한 프로그램 경험을 통한 진로탐색 (F학생)			
진로결정의 기회 제공 (G학생)			
자유로운 수업분위기 (C학생)	학업의 자율성		
교육과정안의 시간 활용 (F학생)			
스스로 학업에 대한 결정 (B학생)	자기 주도적 학습		
공동체와 종교에 대한 사상 (C학생)	공동체와 종교사상		
행복 (A학생)			
다양한 경험을 통한 자신의 성장 (C학생)	자신의 자아실현	10. 성장을 통한 자아실현	
재미의 가치 (D학생)			
졸업 후의 설렘 (G학생)			
사회생활의 자신감 (F학생)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C학생)	타인에 대한 존중		
나눔과 베풀 수 있는 마음 (E학생)			
다양한 직업에 대한 기대 (B학생)	진로에 대한 기대		
합계	90	30	10

또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의견이 연구 과정에 대한 편향성으로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측면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검토하는 삼각검증을 실시하였다(Mills, 2005). 마지막으로 교육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자료를 분석 및 해석에 대한 검토를 받았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IV장에서는 연구 문제별로 결과를 제시하고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제도권 학교를 거부하고 학생들이 대안학교를 선택한 요인

학생들이 제도권 학교를 거부하고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 그들이 선택을 하는 정당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핵심에는 자신의 성취욕구와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게 된다. 이 선택의 안에는 변화하는 사회의 구조에 미치지 못하는 교육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작용하게 된다. 즉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기대와 성취감의 욕구를 스스로의 가치관으로 형성하게 되고, 이에 대한 생각이 현실적인 교육적 조건에 미흡하기 때문에 선택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다. 대안학교는 제도권 학교에서 학업중단 학생이나,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 또는 자신의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기 위한 특별한 학교이며, 추구하는 교육적 이념 역시 일반 학교와 큰 차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택하는 요인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현실의 교육에 대한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 ‘가족의 권유’, ‘학업에 대한 문제’, ‘학교생활의 문제’, ‘대안학교의 좋은 문화’ 등과 같은 선택의 요인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자신의 가치관 형성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선택을 하게 된다. 이러한 직·간접적으로 선택한 학생들의 생각은 어떠할까, 학생들이 대안학교를 선택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 안에 대안학교의 교육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가족의 지지

1) 가족의 권유

면담 참여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대안학교를 선택한 주요 요인으로는 ‘부모님의 권유’와 ‘누나의 추천’등 가족의 권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안의 학생 개인이 이유는 다르겠지만, 이는 개인의 선택보다는 함께하는 가족의 영향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부모님의 권유였어요. 원래 저희 언니도 여기에 다니고 있는데 언니가 먼저 1년~2년, 다녔었거든요. 언니가 원래 초등학교 다닐 때는 대개 적응은 잘했는데 공부에서 어려워하고, 갔는데 언니가 점점 나아지는 걸 보고 저도 가는 게 좋겠다.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셨는데~ 처음에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A학생, 2021.03.25.>

이 전의 학교는 차별이 있는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공부하는 게 좀 힘들고, 그래서 잠시 학교를 다니는 것을 싫었는데요. 제 부모님이 기독교 정신이 있는 분들이시고, 차라리 기독교 대안학교를 다녀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가게 됐어요.

<B학생, 2021.03.25.>

저희 아빠가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친한 후배가 하는 기독교 대안학교가 있는데 그런 학교는 어떠냐? 너가 인문계 가고 싶으면 인문계 가고, 여기 가고 싶으면 여기 가도 된다. 제가 동생이 있는데 동생은 솔직히 인문계 가는 게 당연하지 않냐? 대안학교 가면은 공부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걱정도 했는데, 여기 학교에 와서 전의 학교의 경험을 떠올리니까 진짜 인문계는 더 이상 있을 곳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많은 고민을 했는데 여기 목사님과 면접을 봤거든요. 그런데 너무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엄청 공감해주시고, 그러시는 모습에 되게 감동을 받아서 오는 걸 결정하게 됐어요.

<C학생, 2021.03.25.>

저도 처음에 선택을 할 때는 부모님의 권유가 있었죠. 다녀 보는 게 어떨까냐 하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저는 이 보물섬 학교가 생겼을 때 어... 오고 싶은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이 보물섬 학교를 알고 있었을 때~.

다녔던 초등학교보다 학업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노는 거가 좀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저한테는 좀 큰 의미로 다가온 거 같아서... 그래서 선택을 했던 거 같아요.

<G학생, 2021.04.15.>

나. 제도권 학교문화에 대한 불만

1) 학업에 대한 문제

면담 참여자들은 일반적인 제도권 학교 교육을 거부하고 대안학교를 선택한 요인으로 학업에 대한 문제도 이야기 한다. 학업에 대한 걱정, 학력지상주의에 대한 불만, 학교수업에 대한 불만, 스트레스에 대한 학업의 무력감 등으로 일반 제도 교육을 거부하고 대안학교를 선택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원래 중학교에 있으면 저도 공부를 잘 못 따라 갔어요... 그냥 일반 교육이니까~ 뭐 예습 복습 이런 것도 잘 안하고.. 그래서 여기 있으면 뒤처지고 나만 계속 열등감 느끼고 할 것 같다.. 남과 비교하고... 그래서 그냥 한 번 가보자! 언니 하는 거 보면 되게 즐거워 보이고, 가서 처음처럼 차근차근 다 배워보자! 이런 생각으로 그냥 가보자 하고 왔어요~

<A학생, 2021.03.25.>

제가 자퇴를 한 이유는 학교에서는 제가 배우고 싶은 걸 아예 배울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 때 심리상담사가 꿈이었는데 지금도 계속 그렇고.. 그런데 학교에서는 계속, 그때 자유학기제가 처음 시행되었을 때인데, 계속 자유롭게 자기 꿈을 탐색하라고 영화 같은 거 틀어주고,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보고서 쓰고 끝! 이렇게 하는 수업이 너무 많았어서, 저는 그냥 영화 볼 거면 영화관에 가지 왜 학교를 올까? 하고 생각했고, 또 선생님들께서는 한 명, 한 명 보살피 주기보다는 그냥 뭉통 그러서 하고, 문제가 있으면 외면하는 모습도 많이 봤고...

<C학생, 2021.03.25.>

스스로 학업에 대한 기준도 일 등급 이런 거만 하게 되니까 이제 너무 저의 모든 생활은 공부에만 초점이 잡혀서 정말 몸도 마음도 상해가고, 정말 그러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하면서 배운 것도 되게 많았어요.. 공부하는 요령, 암기하는 요령 뭐 이런 것도 조금 알게 됐는데... 그런데 그렇게 지내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이제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 뭐 하는 거지..? 싶었는데 정신차려보니 1년이 다 가 있는 거예요... 시험치고 수행평가 하고 또 시험 치다 보니까... 그래서 대안학교를 오게 됐어요.

<C학생, 2021.03.25.>

2) 학교생활의 문제

면담 참여자들은 제도권 학교를 거부하고 대안학교를 선택한 요인으로 제도 교육의 학교생활 문제를 이야기한다. 교사와 학생의 무관심, 교우관계 불만 등의 이유로 많은 고민 끝에 학업 중단을 결정하고 대안학교의 선택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인문계 지도가 필요하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부모님과 상의를 했는데 내가 가고 싶으면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좋은 경험이 될 거다 해서 갔는데,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친구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정말 서로에게 엄청 무관심하고, 또 자기 속마음 전혀 이야기 하지 않고, 약간 서로 배척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이러는 모습이 진짜 심했거든요...

<C학생, 2021.03.25.>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일단은 그 전 학교랑은 많이 다른 거예요. 이 전 국제 학교 친구들이 대부분 공통적인게 다들 솔직히 좀 자기만 생각하는 것도 많았고 상대에 대한 이해와 배려심이 없는 것도 있었고... 이기적인 것도 있었는데요... 그 뭔가 이 학교에 들어오니까 애들에게 다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F학생, 2021.03.25.>

다. 대안학교의 매력

1) 대안학교의 좋은 문화

제도 교육을 거부하고 대안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의 또 다른 요인으로서는 함께하는 생활, 학교의 만족, 학교의 좋은 문화 등의 대안학교의 좋은 문화를 선택의 이유로 확인 할 수 있었다.

저도 중학교 1학년 한 학기 정도를 공교육을 다녔었는데 거기를 다니고 이 대안학교를 오니까 공교육에서는 여기보다는 좀 더 개인적인 느낌을 받았었는데 여기서 이제 다 같이 살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랑 다 친하고 그 점에 전 좋았던 거 같아요. 좀... 학교의 문화라든지 그런 게 좋아가지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D학생, 2021.03.25.>

어... 사실 처음에는 일반 중학교를 가야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생각이 바뀐 게 예전에 갔던 캠프 때문인 거 같아요. 캠프에서 처음... 그때 기독교가 처음이었는데 힘들었지만 사람들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제일 어렸는데 그 당시 캠프 갔을 때 잘 챙겨 주시고.. 그래 주셔가지고 선택을 하게 된 거 같아요~

<E학생, 2021.03.25.>

이 학교의 문화가 좀 안 믿겨질 정도로 깨끗하고 이게 되는구나 생각했던 거 같아요. 진짜 제가 집에서 혼자서 우와 이런 학교 다니고 싶다~ 나 지금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진짜 없는 학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지금 막 생각이 많이 남고... 달랐던 거 같아요.

<F학생, 2021.03.25.>

2.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특성

학생들은 제도교육을 거부하고 대안학교를 선택해서 학교생활 적응에 만족해하며 스스로의 개발 및 성장을 통해 변화해 나가는 데에는 다양한 특성들이 있다.

이는 학교에서 학업이 전부가 아닌 다양한 문화를 배우고 느끼며, 활동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고 노력하게 한다. 다양한 학교의 환경과 교사와 친구들로부터 함께 지내며 학업 활동 및 규칙 준수 등을 포함한 모든 교육적인 활동을 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자신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만족스럽고 조화 있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로 인해 학교생활 적응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학교생활 적응에 필요한 요인, 학교생활 적응에 학생의 역할,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는 부분 등의 질문을 통해 ‘교우관계 및 공동체 의식’, ‘대안학교의 긍정적인 문화수용’, ‘교사, 학생의 신뢰’,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기’, ‘리더십’, ‘학교에 대한 기대감’, ‘함께하는 학교생활’, ‘교육방법’, ‘다양한 프로그램’, ‘학업의 자율성’ 등의 특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인터뷰를 통해 면담 참여자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대안학교의 어떠한 특성의 부분들이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의 만족을 주는지 그들이 생각하는 학교생활 적응의 특성에 대해서 진술된 내용을 보면서 살펴보려고 한다.

가. 긍정적인 학교문화

1) 교우관계 및 공동체 의식

대안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학교생활 적응에 필요한 요인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 공동체, 적극적인 친밀감 표시, 친해지기 위한 노력, 편안한 교우관계, 교우관계의 중요성 등의 적극적인 교우관계의 유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저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잘 적응하는 거에는 공부도 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있잖아요~ 둘 다 적극적인 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진짜 소극적인 성격이었던 말이에요. 질문도 잘 못하고~ 그랬었는데~ 점점 이게 바뀌어 갔어요. 원래 제가 교회에서 조 같은 거 만들고 하면은 되게 가만히 있거나 따라가는 스타일이었는데 점점 이끌어 가는 스타일로 변해 가고 있어요.

<A학생, 2021.03.25.>

저는 약간 제 특성이 인간관계에 관심이 많아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환경이 좋고 그래도 친구들이 나를 배척하면은 학교 폭력 때문에 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우울증이나 그런 거까지 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항상 이야기 하는 공동체! 공동체라는 개념을 되게 신기하고 특별하다고 느꼈어요.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다 친구들이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저 친구가 무슨 말을 하던지 다 수용해주고, 이해해주고, 조금 마음이 아픈 친구나 예민한 친구가 있어도 그런 친구대로 이해해주고 오히려 더 맞춰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C학생, 2021.03.25.>

그 안에 있는 친구들과 가까워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같고 그리고... 뭔가 다가와 줌으로서 전체가 같이 이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거... 제가 처음 여기 들어왔을 때는 나 혼자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이 뭔가 소외감이 들기도 하고. 또, 그럼으로써 뭔가 좀 내가 따돌림 받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친구들이 같이 보듬어주고 할 때 그게 같이 있구나~! 내가 여기 같이 속해 있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친구들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G학생, 2021.04.15.>

2) 대안학교의 긍정적인 문화수용

면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 또 다른 필요한 요인으로 대안학교의 고정관념 버리기, 재미있는 수업환경, 학교의 긍정적인 문화수용,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부담감 줄이기 등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개인이 생각하는 이유가 다르겠지만 면담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학교의 교육철학과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사 및 친구들과 재미있게 학교생활을 하려는 모습들을 발견 할 수가 있었다.

제가 생각하는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아무래도 여기는 공교육과는 완전 새로운 환경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있을 테고, 어떻게 말하면 또 두려움도 있을 테고, 이제 저는 음... 너무 부담감을 갖고 오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는 저희 학교는 되게 처음 온 학생들에게 잘 다가가주고 말도 많이 걸어주고, 그리고 같이 잘 놀러 다니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거 같아서 내가 막 친해져야지 이런 막 부담감을 가지고 오시는 것 보다 좀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게 부담감을 덜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학생, 2021.03.25.>

일단은 학교를 다니면서 재미있게 다닐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여기에 온 게 전에 다니던 곳이 너무 힘들어서 온 거니까... 그리고 여기 오니까 공부하는 것도 좀 더 편한 것 같고, 그 전보다 대화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원래는 말도 별로 없고, 성격 자체가 그 전보다 좀 더 개방적이 된 거 같고, 이렇게 하니까 되게 편안하게 자기 자신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거 같아요.

<B학생, 2021.03.25.>

약간 대안학교에 대한 생각을 하면은 되게 고정관념이 있는 거 같아요~ 내가 공부를 안 하고 놀기만 한다~ 이런 게 되게 많은 거 같아요. 지금 신입생 애들만 해도 너희 시험 봐? 너희 시험 안보는 줄 알고 왔는데... 막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좀... 바꾸고 여기에 올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요~

<A학생, 2021.03.25.>

3) 교사, 학생의 신뢰

면담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요인으로 상호 존중하는 관계와 교사 학생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학교생활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신뢰성을 보여주며 생활하는 것을 확인할 수 가 있었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 문제라 던지.. 강박관념 같은 게 조금씩 있는데.. 그런 걸 다 수용해 주고, 뭐라고 해야 하지...? 다 품어 주는 분위기..?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고 어떤 사람이던 다 존중해주고, 한 명 한 명을 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 적응하고, 학교 뿐만 아니라 그냥 인생에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가장 필요한 게 상호 존중하는 관계~ 사랑이 있는 관계가 아닐까? 그래서 이 전 학교에서는 저는 1년 내내 적응을 못했는데 지금은 온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다 속도 털어놓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친구들 고민도 들어주고 이렇게 좀 더 신나게 더 잘 지낼 수 있는 거 같아요~

<C학생, 2021.03.25.>

음... 뭔가 그것도 있었던 거 같아요. 저는 적응하면서 좀 힘들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조금 사춘기인지 안 좋은 모습도 좀 했고... 전 솔직히“나 이젠 또 나가겠다”제가 퇴학당하거나 뭐 어떻게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안 그러더라구요. 저에게 개별 상담도 해 주기도 하고... 대개 포기 안 하는 게 느껴졌어요. 진짜 저를 포기를 안 하려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게 아... 나를 포기 안하니 나도 포기하면 안되겠다 라는 게 많이 남았던 거 같아요.

<F학생, 2021.03.25.>

나. 열린 마음과 기대감

1)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기

면담 학생들이 제도교육을 거부하고 대안학교를 선택해서 학교생활 적응에 자신의 역할로 마음을 열고 다가가기, 상대에 대한 관심 갖기, 관심 분야 공유하기,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열린 마음 갖기,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 극복하기, 부족한 점 노력하기 등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학교생활 적응에 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다.

제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일단 마음을 열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친구들 중에서도 친해지기 조금 쉬운 친구는 조금 마음을 열고, 다 같이 노는 걸 즐거워하는 친구들은 조금 이렇게 다가가기 쉽지만, 마음을 좀 닫고 있거나 아니면 전에 받았던 상처들이라 던지 이런 게 남아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그 다가가기가 조금 어려워서 조금 그렇더라고요...

<C학생, 2021.03.25.>

저는 좀 전에 말했듯이 관심이 없을까? 그 사람이 적응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대해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다 보면 그 사람을 더 잘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서로 알아 가면은 점점 편해지고 그렇게 적응이 되는 거 같아요.

<D학생, 2021.03.25.>

제가 낯을 많이 가리는데 그 이제는 좀 창피하다~ 내가 모르는 사람을 내가 굳이 다가가야 되나 해서 제가 사람들이 저한테 다가와도 좀 피해 다니는 것도 있었던 거 같아요. 하지만 이 대안학교에 와서는 누가 다가오면 나도 똑같이 좀 다가가 주고 뭔가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나도 좀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야되는 그런 게 많았던 거 같아요.

<F학생, 2021.03.25.>

친구가 마음을 열고 있어야 같이 어울리고 친해지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 같아요. 마음이 뭔가 열려있지 않으면 아무리 친해지려고 해도 겉으로만 친해지는 거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진짜 부딪치고 이렇게 하려면 내가 이 안에서 관계를 어떻게 휩쓸리던, 내가 이 안에서 이 안에 진짜 파고들고, 내가 이 친구들을 이제 가득 받고, 또 그런 마음을 뭔가 가지고 있어요. 이 친구들과 부딪치더라도 어떻게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관계가 성장해 나가는 거 같아요.

<G학생, 2021.04.15.>

음... 뭔가 대개 두려움이 있잖아요. 새로운 환경에 들어오고, 새로운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 같아요. 대개 이 사람들을 믿을 줄도 알아야 되고 마음을 열 줄도 알아야 되고 그게 대개 중요한 거 같아요.

2) 리더십

면담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학업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끌어 가는 의미의 역할이 중요하고, 자신의 책임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였다.

저는 앞에서 말했듯이 이끌어 가는 의미. 그러니까 애들이 많잖아요. 애들이 막 말하다가 어 조금 선을 넘는다거나, 조금 이상한 데로 간다면 거기서 끊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끊지 못하면 마찰이 생기고 하면은 애들이 좀 어색해 하고, 학교가 자꾸 애들도 얼마 없는데 거기서 그렇게 되면은 학교분위기가 다운이 되 버리는 거잖아요~ 적당히 끊어 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A학생 심층면담, 2021.03.25.>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이 내게 맡긴 거에 대한 그런 책임감 같은 거라 생각을 해요. 이게 위험하거나 하는 게 아니 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보라고 놔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때문에 제가 원하는 것을 해 볼 수 있고, 그만큼 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자신이 그거에 선택한 거에 대해서 책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B학생 심층면담, 2021.03.25.>

3) 학교에 대한 기대감

면담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처음 학교에 입학할 때 그 학교에 대한 설렘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한 배움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 하였다.

처음 학교에 올 때는 설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데... 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뭔가 내가 뒤처지더라도 이것도 해보고 싶고 친구들이랑... 친구들이 저걸 하고 있는데... 아~ 나도 같이 속해서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안에 파고들 수 있을 거 같아서...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G학생 심층면담, 2021.04.15.>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내가 뭘 하던지, 어떤 거를 하던지, 거기서 배우는 것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배울 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도 물론 인문계랑 다른 점이 많이 있겠지만 더 좋은 점이 있을 거고, 조금 더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부족한 점은 내가 노력을 해서 채우고, 약간 좋은 점은 수용을 하고, 더 받아들이면서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C학생 심층면담, 2021.03.25.>

다. 학교생활의 다양한 경험

1) 함께하는 학교생활

면담 학생들은 자신의 학교생활 적응에 바른생활 교육, 학교생활 만족, 함께하는 기숙사 생활, 주체적인 생활 등의 부분들이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생활적인 면에서도 음... 일반학교 가면 약간 욕을 한다거나, 저도 예전에는 욕을 막 했었거든요...(웃음) 막 이게 물들어 가요...(웃음) 그런게 있었는데... 여기서 바른생활을 하게 되는 줌... 알맞은 선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야 하나 음.. 그런 느낌이 있어요.

<A학생, 2021.03.25.>

저희가 기숙사에 한해서 일 수 있지만 기숙사를 쓰면서 이제 24시간 멘토 선생님들이랑 함께 생활을 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방을 쓰면서 사회성을 기르기 좋

지 않을까? 아~ 좋은 거 같아요.

<D학생, 2021.03.25.>

저희 학교는 기숙사니까 당연히 생활적인 것도 많이 맞춰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사람이랑 내가 좀 같이 살면 또 달라지잖아요. 나하고 이 사람이 좀 같이 살면 이게 좀 어렵고 갈등이 생겼다. 근데 이제 그걸 말하면서 대개 맞춰가면서 풀어주는... 서로 서로 말하고 풀어주는 그런 사회생활도 많이 배우면서 적용했던 거 같고, 또 생활적인 걸 같이 하다 보면 사람이 따뜻해지잖아요. 좀 더 가족처럼 그런 가족 같은 관계가 되고... 그런 면에서 함께하는 생활이 진짜 제가 적응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던 거 같아요.

<F학생, 2021.03.25.>

저는 주체적인 생활...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다가가는 것도, 어떤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느꼈을 때 그걸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좀 부딪쳐도 된다는 생각...?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 같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내가 지금 어떤 모습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으려면 또 주체적으로 뭔가 나에 대해서 돌아보고 뭔가 계속 평가를 해보고 또 나 스스로를 평가해보는 그런 과정들이 중요한 거 같아요.

<G학생, 2021.04.15.>

2) 교육방법

면담 학생들 중 몇 명의 학생들은 맞춤형 공부, 학업과 진로의 연계성, 적극적인 교육방법 등의 부분들이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 하였다.

먼저 공부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맞는 공부여서 좋았어요~ 근데 일반학교는 진도만 따라가느라 바쁘잖아요. 근데 저희는 진도를 나갔어도 그 한 명이 모르면 다시 설명해 주시는 게 좋았던 거 같아요.

<A학생, 2021.03.25.>

학교에서 제가 하고 싶은 유튜브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지만, 제 진로와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니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고, 또 특강 같은 것도 많이 듣거든요~ 막 하브루타 수업이라든지.. 다양한 강사님들이 오셔서 강의도 해주시는데 제가 듣고 싶은 수업도 주체적으로 들을 수도 있고, 관련된 정보도 방대하게 배워볼 수 있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해서도 하지만, 너무 공부에만 갖춰있는 게 아니라 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할 수 있게 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이 되게 많이 있는 거 같아서 좋은 거 같아요.

<C학생, 2021.03.25.>

음... 뭔가 선생님들이 적극적이랄까? 학생들을 진짜 아껴주는 마음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멘토링 이겠죠? 그런 멘토링이 적용에 진짜 많이 도움이 되었던 거 같아요. 제가 이제는 생활적인 것만이 아니 여도, 그냥 배워야 되는 것, 사람으로서 배워야 되는 것도 물어보면 선생님의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해 주시고.. 그냥 힘든 거 있으면 제가 말했을 때 지도해 주고 그런 부분에서 정말 감사했어요...

<F학생, 2021.03.25.>

3) 다양한 프로그램

대안학교를 선택한 면담 학생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경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 자신의 진로와 연결된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친해지기 등의 부분들이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음... 프로그램도 학교에서 매일 국, 영, 수, 사, 과학 등 그렇게 공부하는 것 보다는 그런 것들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에세이 라든지, 자기가 직접 수업을 개설해서 하는 학습자 개설 수업이라는 게 있는데 학생이 수업을 만들어요. 어떤 친구들은 농구를 하고, 어떤 친구는 독서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그 유튜브에 올릴 심리학 관련 영상들에 대해서 하고, 그 결과물을 영상으로 해서 수업 자체를 만들어요. 스스로 이렇게 하면서 배운 점과 느낀 점을 기록하고 결과물 제출까지 하는 거예요.

<C학생, 2021.03.25.>

제가 듣고 싶은 수업도 주체적으로 들을 수도 있고, 관련된 정보도 좀 더 방대하게 배워볼 수 있어서 좋은 거 같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해서도 하지만 너무 공부에만 갖춰 있는 게 아니라 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할 수 있게 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이 많이 있는 거 같아서 좋아요.

<C학생, 2021.03.25.>

자신의 진로를 대개 편하게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거 같아요. 저희가 재량 활동이라는 걸 하는데 그게 자기가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들을 생산적인 활동들을 하고 그게 이제 잘 되면은 흥미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 교육 방법인 거 같아요.

<D학생, 2021.03.25.>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체험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이 이제 코로나로 많이 못나가긴 했는데 제가 격주로 이제 월요일에 오전 시간이 끝나고 저희가 현장 체험을 가거든요~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학교에 잘 적응을 하면서요.

<E학생, 2021.03.25.>

4) 학업의 자율성

면담 학생들은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수업 선택의 자율성, 자율적인 수업, 자율적인 교육과정 등으로 학업의 자율적인 점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아리 외에도 자기 주도 선택 수업이라고 해서 자신이 원하는 걸 선택을 하고 자기개발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거기서 영어로 소설 쓰기를 했고, 그리고 자기가 배우고 싶은 분야에서 책을 읽고, 그런 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하는 시간도 주어지고, 또... 영어 자기주도 학습이 있는데

영어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거기서 영어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 같은 건 잡아주지만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준다 던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원하고 우리가 필요한 걸 알아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지만 기본적인 틀은 잡아주며 “이 방향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B학생, 2021.03.25.>

저희 학교는 자율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저희 학교가 학점제로 실시하고 있는데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과목이 있는데 몇 학점을 채우면은 나머지 과목은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 아무래도 그런 수업 선택의 있어서 자유로움도 있고, 그리고 다른 수업 선택과목을 제가 수강을 하지 않는다면은 ‘공강’ 시간이 생기잖아요. 그 시간에 또 다른 ‘공강’ 시간 아이들과 놀면서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E학생, 2021.03.25.>

음.. 자율성... 저희 학교가 대개 좀 자유롭긴 해요. 이 전의 학교는 좀 딱딱하게 있어요. 확실히 영어로 하니까 애들이 스트레스 받는다... 학교 끝나면 또 영어학원 가고... 그런 딱딱한 분위기 였는데... 여기는 그런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라 좀 숨이라도 좀 쉴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뭔가 좋은 거.. 그런 스케줄이 대개 자유롭고... 전에 학교는 그런 짜여진 시간표에 따라 움직였고 좀 무관심 했죠~ 거기에 맞춰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와 반대로 움직이는 거 같아 좋은 거 같아요.

<F학생, 2021.03.25.>

저는 멘토 선생님들인 거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 학교 멘토 선생님들이 나이가 젊으시고 하니까 아무래도 일반 공교육과는 다른 느낌이라서 수업만 가르치는 선생님과 뭐.. 친하지는 않잖아요... 아무래도 좀 더 나이 때가 비슷하니까 친근감도 형성시킬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까지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어서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E학생, 2021.03.25.>

3. 대안학교 학생들의 진로 준비 행동의 특성

제도교육을 거부한 학생들이 자신들의 직·간접적으로 대안학교를 선택하고 학교생활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게 된다. 진로 준비 행동은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 가능한 행동의 노력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이 올바른 진로 준비를 통해 합리적으로 진로결정을 하고 이후에 그 결정에 대한 사항을 실천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실천하기까지 진로에 대한 장벽도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면담 참여자들은 심층 면담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학생의 진로 준비 행동에 필요한 요인, 진로 준비 행동의 학생의 역할, 진로 준비 행동에 도움, 졸업 후 성취감 등의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 찾기’, ‘동기부여 및 자신감’, ‘부모님의 지지’, ‘진로 찾기에 대한 노력’, ‘목표에 대한 노력’, ‘진로에 대한 정보검색’, ‘새로운 경험의 도전’, ‘다양한 프로그램의 경험’, ‘학업의 자율성’, ‘자기 주도적 학습’, ‘공동체와 종교사상’, ‘자신의 자아실현’, ‘타인에 대한 존중’ 등의 특성이 표출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인터뷰를 통해 면담 참여자들의 진로 준비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안에서 어떠한 부분이 학생들에게 진로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며 그 행동의 특성을 진술된 내용 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자기 스스로의 진로 찾기

1) 자신의 진로 찾기

면담 학생들의 진로 준비 행동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진로 고민, 자신의 진로에 대한 준비, 자신의 목표에 대한 노력, 학업 준비와 진로 탐색, 다양한 경험을 통한 진로 찾기, 다양한 경험 등의 요인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를 통해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막연하게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라고 해야 되지... 수학 관련된 것을 하고 싶긴 한데.. 정확하게 뭐를 할지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소프트 개발자 같은 것도 해보고 싶고, 아니면 보드게임 같은 것을 만드는 것도 해보고 싶고, 그런 식으로 수학과 관련된 것을 해보고 싶은데 정확히 뭘 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B학생, 2021.03.25.>

지금 현재로는 일단 대학에 가고 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능 전형만 있는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전형이 있더라구요. 포토폴리오 형식으로 내가 하는 거를 기록해서 그것을 자신의 스펙으로 쓰기도 하고 또한, 유튜브라던지.. 아니면 공모전 수상기록이라 던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런 걸로 진로를 설정하고 더 나아가도 괜찮지 않나... 또한 인터넷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서 학습관련 궁금한 점은 선생님들에게 질문으로 다 해결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C학생, 2021.03.25.>

대안학교다 보니까 검정고시는 봐야 해서 대부분 검정고시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대학교 수시로 많이 가는 편이고.. 그리고 또 다른 방면에서는 학교를 다니는 동안 자기가 좋아 하는게 뭔지... 그것의 발견을 먼저 해야 될 거 같아요.

<D학생, 2021.03.25.>

제가 생각하는 요인은 탐구열인 거 같아요. 왜냐 하면은 저희 학교의 미술이라든지, 재량학습 시간에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를 어떤 거든 선택을 해서 발표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많으니까 아무래도 자기 진로를 찾으려면 많은 걸 해 봐야 되잖아요. 자기 적성에 맞는 걸 찾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에 있어서 나는 최대한 많은 걸 느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 학교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잘 느끼면은 진로 준비 행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E학생, 2021.03.25.>

학교 안에서 새로운 도전들을 해보면서 저도 진로를 찾게 된 경우이긴 한데...

좀 더 다양한 경험이 중요한 거 같아요. 제가 보물섬 학교를 다니며 진로 수업을 받으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또 어떤 학교의 행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갈 때 다양한 역할들을 맡아보거나 이런 것들을 해 보면서 아! 내가 이런 거에도 관심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이 무조건 중요한 거 같아요. 진로에 있어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것을 한다는 것에 대한 상상을 못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G학생, 2021.04.15.>

2) 동기부여 및 자신감

면담 학생들은 진로 준비 행동에 필요한 주요 요인으로 동기부여 및 자신감을 이야기 하였다. 교사의 지속적인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 필요성으로 느껴져 진로 준비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하였고, 자신이 하고 싶은 거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음.. 저는 동기부여라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에는 대학 가기 싫었어요. 제가 별로 하고 싶은 게 없었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하기 싫었는데... “대학을 왜 가야 돼? 이런 느낌이었는데 여기 와서 선생님들이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되고 싶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약간 이런 식으로... 또는 “꿈꾸는 게 뭐야? 이러니까 저도 이걸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자신의 필요성을 느끼고,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은 행동으로 하겠지요. 그러니까 계속 동기부여 해주는 게 좋은 거 같아요.

<A학생, 2021.03.25.>

음... 저는요. 제가 뭐를 하고 싶은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은 그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똑같이 있는 거 같아요... 뭔가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있을 거 같고... 제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근데 뭔가 그거를 극복할 줄도 알아야 되고, 아니다! 나는 이걸 할 수 있다! 라는 마음도 생겨야 되고, 꼭 이걸 할거다! 라는 자신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F학생, 2021.03.25.>

3) 부모님의 지지

면담 학생들은 진로 준비 행동에 필요한 요인으로 열린 마음으로 대해주시는 부모님의 지지를 이야기 하였다.

저는 직업을 하나 가진다 해서 그게 꿈이 아니라 인생의 걸어가는 길이 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부모님께서도 열린 마음으로 대해주시고, 저도 그냥 돌아가더라도 내가 그 과정을 통해 배우기만 하면 된다 생각해서 여기 온 거 자체도 제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C학생, 2021.03.25.>

나. 적극적인 진로 찾기의 노력

1) 진로 찾기에 대한 노력

면담 대상자들은 진로 준비 행동에 학생의 역할에 대해서 진로 찾기에 대한 노력, 적극적인 진로 탐색 등으로 자신의 진로 준비를 한다고 하였다. 진로 찾기에 대한 개인의 과정은 다르겠지만 면담 대상자들은 다양한 진로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었으며, 적극적으로 찾으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제가 하고 싶다고 생각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린이집 교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을 때 계속 찾아 봤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상담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해서 책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찾아보고 궁금해 하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호기심을 갖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알아가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을 하고 실행하는 역할이 중요한 거 같아요.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A학생, 2021.03.25.>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거에 대해 적극적 이여야 할 거 같아요. 일단... 자기 진로를 찾는 게 어떤 진로로 가고 싶으냐? 에 따라서 준비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D학생, 2021.03.25.>

제가 만약 경찰이 될 거야 그리고 아무것도 안하면 그건 꿈보다 그냥 상상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거에 맞춰서 노력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한다고만 하지 않고 진짜 해야 되는 그런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다 보면 어려운 것도 있잖아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 확신이 있을 때까지 충분히 검색도 해보고 열심히 자료도 찾고요. “내가 할 거다! 라는 진짜 마음속에 품고 하면서요.

<F학생, 2021.03.25.>

2) 목표에 대한 노력

면담 학생들은 진로 준비 행동에 학생의 역할로 자신의 목표에 대한 꾸준한 노력이 자신의 진로 준비 행동이라고 하였다.

저는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조금 부족하거든요...무언가 좀 꾸준히 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성취를 한다 던지.. 꾸준히 하는 과정에서 뭔가 얻는다 던지.. 이렇게 하는 걸 잘못해서... 공부도 그렇고요... 수능이라는 목표가 있지만 공부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매일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매일 하는 행동을 저의 개발을 위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C학생, 2021.03.25.>

3) 진로에 대한 정보 검색

면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 준비 행동으로 진로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찾아본다고 이야기 하였다.

제가 했던 거는 아무래도 뭔가 탐구열이랑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저는 하고 싶은 걸 찾기 위해서 검색을 많이 해봤던 거 같아요. 뭐 이것저것 보면서... 이제 거기서도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 이걸 내가 해봤던 건데 이걸 나랑 잘 안 맞는 다던지 이런 것도 있었고, 아무래도 모든 걸 다 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간적 한계도 있고...

<E학생, 2021.03.25.>

4) 새로운 경험의 도전

면담 대상자들은 자신의 진로 준비 행동으로 다양한 경험과 도전을 통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고 그에 따른 노력을 한다고 하였다.

저는 조금 더 새로운 것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또 하지 못했던 것의 도전을 하니까 새로운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종류를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 난 이것들을 더 좋아하는구나~ 그 종류 속에서 새로운 것을 딱 발견했을 때 그걸 시도하면서 아 내가 좋아하는 게 진짜 이거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도전해 보고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G학생, 2021.04.15.>

다. 다양한 진로 찾기의 경험

1) 다양한 프로그램의 경험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진로 준비 행동에 도움을 주는 부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경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진로 탐색,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만남, 다양한 진로 정보 획득,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진로 찾기, 다양한 프로그램 경험을 통한 진로 탐색, 진로 결정의 기회 제공 등의 요인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를 통해 자신의 진로 준비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교육 프로그램, 그건 되게 잘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많은 걸 경험해 보고 많은분들의 스토리를 들어보고, 그게 느껴지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이야기가 다르니까~

<A학생, 2021.03.25.>

저는 에세이 쓰기라든지, 아니면 학습자 개설 수업, 이런 수업들이 직접적으로 저의 관련된 능력들이 향상되고 있는 것을 느껴요. 예전에는 일기처럼 썼다면 지금은 에세이처럼 써가는 방법도 배우고 있고, 또 다양한 활동들이라든지 아니면 코칭이라고 해서 마인드에 대해서 배우는 게 있는데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청소년기에 마인드가 견고하게 잡히면 더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되게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C학생, 2021.03.25.>

저희 학교는 듣고 싶은 수업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듣지 않는 수업 시간에는 공강 이라고 쓸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도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또 재량활동이라는 걸 통해서 진로를 준비할 수 있어요. 그 재량활동이라는 게 꼭 하고 싶은 거를 한다 이거보다는 도전적으로 해서 이게 맞으면 아! 이게 내가 잘 맞는 활동이구나! 할 수 있고, 이거는 나한테 안 맞는구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다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D학생, 2021.03.25.>

제가 생각이 들었던 거는 저런 분야에서는 저런 일들이 있고, 그 분야에서는 뭐를 중요하게 생각 하는구나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느낀 거 같아요. 아무래도 자기 진로를 알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되게 깊숙하게 봐야 되잖아요. 뭐 어떤 게 필요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깊게 알게 되고요.

<D학생, 2021.03.25.>

진로를 결정하는데 이 학교에서 배웠던 철학이나 경제학 또는 심리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에게 중요하게 다가왔었던거ですよ. 제가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 그게

다 사람을 만나는 일인데... 그 속에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했고, 오히려 제가 하고자 하던 것을 직접적으로 배우게 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뭔가 주변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거나,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수업 자료들을 주신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거 같아요.

<G학생, 2021.04.15.>

2) 학업의 자율성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진로 준비 행동에 도움을 주는 부분으로 자유로운 수업 분위기, 교육과정 안의 시간 활용 등의 요인들이 진로 준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에서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여러 과목들의 선생님들께서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공부 부분도 훨씬 격의 없이 할 수 있게 되어서 즐겁게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진로 준비에도 그렇고, 저의 인생 전반에도 그렇고,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C학생, 2021.03.25.>

저희는 ‘공강’ 시간이 있는데 그런 ‘공강’ 시간에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런 ‘공강’ 시간에 제가 많이 연습하고 잘 된 거 같아요. 이 전 학교에서는 ‘공강’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제가 하고 싶었던 걸 할 시간이 있어서 좋은 거 같아요.

<F학생, 2021.03.25.>

3) 자기 주도적 학습

면담 학생들은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 중 스스로 학업에 대한 결정을 통한 자기 주도 학습 등의 부분들이 진로 준비 행동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여기 학교는 전의 학교와 조금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거기는 하고 싶다면 다 시켜주고 하고 그랬거든요~ 자기가 다 해보고 싶은 거를 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제가 뭐... 컴퓨터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 하면 어디를 보내주거나 하는 그런 게 아니니까... 여기서는 자기가 직접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느낌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B학생, 2021.03.25.>

4) 공동체와 종교사상

면담 학생들은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 중 공동체와 종교에 대한 사상 등의 부분들이 진로 준비 행동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제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상태에서 이걸 잡게 해준 게 여기에서 공동체와 그 기독교 사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신앙적으로 견고하게 잡히니까 앞으로 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보이고, 그렇게 꿈을 새로 설계하게 되고...

<C학생, 2021.03.25.>

라. 성장을 통한 자아실현

1) 자신의 자아실현

면담 학생들은 제도교육을 거부하고 대안학교를 선택해서 학교생활 중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며 졸업을 하게 된다. 이후에는 행복의 추구를 원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한 자신이 성장하기만을 기대하며, 재미의 가치 등을 통해 자신의 자아실현을 표출하였다.

제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행복으로 했었어요. 제가 행복하기를 원하면 옆에 사람이 행복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린이집 때부터 행복해지는 방법이라 해야되나...? 약간 사람들은 남과 비교하는 것도 많고, 열등감도 느끼고, 경쟁

을 하거나 그러잖아요...‘나는 어려서부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와 함께 칭찬도 하고 자기에 만족할 줄도 아는 그런 거를 가르치고 싶다’ 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A학생, 2021.03.25.>

저는 자신의 발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되게 좋은 세상을 보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많이~. 이전 학교에서는 반 안에서, 학교 전체도 아니고 반에서 사회생활..? 좁은 시선을 가지고 보는 느낌이었다면 여기를 와서는 다양한 것에 대해서 알게 되고, 다양한 외부 강사 선생님들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좀 확 트인 시야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능력도 좀 크지 않을까...?

<C학생, 2021.03.25.>

저는 음... 항상 살면서 중요한 가치가 뭐냐고 하면은 저는 ‘재미’라고 하거든요. 사는데 ‘재미’가 없으면 별로 행복하지 않을 거 같아서... 저는 제가 재밌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D학생, 2021.03.25.>

뭔가... 그 100% 내 삶을 구성한다는 그런 설렘이 있었던 거 같아요. 제가 해 보고 싶었던 것들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느낌...? 제가 딱 20살이 돼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저는 17살에 졸업을 했을 때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성인이 되기까지도 시간이 남았고, 제가 할 수 있는 시간도 많다고 느껴졌고, 그 전에는 진로에 대한 고민을 제가 깊게 못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오랜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해 나가고, 제가 하고자 했던 것들을 하면서 그 시간들을 채 수 있는 거잖아요. 시간을 온전히 저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 그게 굉장히 큰 설렘 이었던 거 같아요.

<G학생, 2021.04.15.>

2) 타인의 대한 존중

면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졸업 후 성취감으로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나눔과 베풀 수 있는 마음 등의 타인의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는 스트레스도 안 받으니까 조금 더 공부와 활동도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성숙해지지 않을까..? 다른 친구들과 대화할 때 저와 의견이 달라도 포용해 줄 수 있고, 제가 배척을 당하더라도 상처받기보다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같은 거를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게 제가 기대를 하는 점입니다.

<C학생, 2021.03.25.>

어.. 저는 학교에서 느낀 게 사랑을 받아왔고, 그거를 어떻게 나눠 줘야 되는지 알게 된 거 같아요. 사랑을 대하는 법도 알게 됐고... 학교 밖의 사회와 여기 대안학교의 사회랑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대안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지키기가 힘든데 저는 어떤 진로에서든 여기서 배웠던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고, 계속 잊지 않고 자기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E학생, 2021.03.25.>

V. 논의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대안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안학교를 선택한 요인과 학교생활 적응 및 진로 준비 행동의 특성을 밝힘으로써 일반학교와 다른 대안교육의 실재를 파악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았다.

- 첫째, 학생들이 제도교육을 거부하고 대안학교를 선택한 요인은 무엇인가?
- 둘째,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의 특성은 무엇인가?
- 셋째, 대안학교 학생들의 진로 준비 행동의 특성은 무엇인가?

본 연구의 참여자는 제주지역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2020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제주지역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및 진로 준비 행동 특성에 대한 질적 연구로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 자료수집에 있어서는 대안학교의 여러 형태 중에서 사립형 대안학교 중 종교단체 대안학교 2곳의 고등학생 각각 3명과 개인이나 협동조합 형태의 대안학교 1곳의 고등학생 1명으로 총 7명을 선정하여 심층 면접의 방식을 통해 진행하였다. 대안학교의 선택요인과 학교생활 적응의 특성 및 진로 준비 행동의 특성 대한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하여 연구 문제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 번째 연구 문제인 대안학교를 선택한 요인에 대한 결과는 ‘가족의 권유’, ‘학업에 대한 문제’, ‘학교생활의 문제’, ‘대안학교의 좋은 문화’ 등의 다양한 이유 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연구 문제인 학교생활 적응의 특성에 대한 결과는 3개의 하위 질문인 학교생활 적응에 필요한 요인, 학교생활 적응에 학생의 역할,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통해 ‘교우관계 및 공동체 의식’, ‘대안학교의 긍정적인 문화수용’, ‘교사, 학생의 신뢰’, ‘열

린 마음으로 다가가기’, ‘리더십’, ‘학교에 대한 기대감’, ‘함께하는 학교생활’, ‘교육 방법’, ‘다양한 프로그램’, ‘학업의 자율성’ 등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연구 문제로 진로 준비 행동 특성에 대한 결과는 4개의 하위 질문인 진로 준비 행동에 필요한 요인, 진로 준비 행동에 학생의 역할, 진로 준비 행동의 도움, 졸업 후 성취감 등을 통해 ‘자신의 진로 찾기’, ‘동기부여 및 자신감’, ‘부모님의 지지’, ‘진로 찾기에 대한 노력’, ‘목표에 대한 노력’, ‘진로에 대한 정보검색’, ‘새로운 경험의 도전’, ‘다양한 프로그램의 경험’, ‘학업의 자율성’, ‘자기 주도적 학습’, ‘공동체와 종교사상’, ‘자신의 자아실현’, ‘타인에 대한 존중’ 등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2. 논의

제도권 학교를 거부하고 학생들이 대안학교를 선택한 요인과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의 특성, 그들의 진로 준비 행동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문제 별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대안학교를 선택한 요인

대안학교를 선택한 주요 요인에 대한 면담 학생들은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기 위해 기존의 제도교육을 거부하고 대안학교를 선택한 요인으로 ‘가족의 권유’, ‘학업에 대한 문제’, ‘학교생활의 문제’, ‘대안학교의 좋은 문화’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면담 학생들이 대안학교를 선택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 중 부모님의 권유, 누나의 추천 등과 같이 가족의 권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장병하(2003)에서 나타난 대안학교 선택 자체가 가족 전략적 행동이고 소극적 수용과 적극적 수용으로 가족이나 주변에 의한 기대감으로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비중이 높았던 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이원이·김동일(2009) 연구 결과와 같이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대안의 교육처로 대안학교를 선택한 경우도 있었는데 본 연구의 경우에도 면담 학생들은 공

통적으로 학업이나 학교생활 어려움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안학교를 선택한 이유 중에는 함께하는 공동체의 생활과 학교의 만족이 높고 대안학교의 문화가 좋아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학업 및 학교생활의 문제로 공교육이 싫어서 선택의 요인이 아닌 함께한다는 공동체의 생활이 좋았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친절하게 다가왔던 교사 및 친구들과 그들이 생각하는 학교생활의 깨끗한 문화 등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홍훈(2017)의 연구 결과로 제시된 대안학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학습자 개인의 인격과 특성을 존중하고 공동체성의 삶을 중시하여 협업 능력을 신장시킨다. 그리고 인성과 지성 및 영성 교육의 조화를 이룬 교육을 제시하여 좋은 학교에 학생들의 지지를 얻은 결과와 일치한다.

이와 같이 대안학교를 선택한 요인으로 ‘가족의 권유’, ‘학업에 대한 문제’, ‘학교생활의 문제’, ‘대안학교의 좋은 문화’ 등의 4가지 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중 ‘가족의 권유’가 선택의 주요 요인으로 가장 강하게 나타났으며, ‘대안학교의 만족 및 문화’가 좋아서 선택을 한 요인은 약하게 표출되었다. 이는 단순히 가족의 권유만으로 대안학교를 선택의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개인의 학업 또는 학교생활의 어려움이 가족 구성원에게 알려지게 되고, 이로 인해 가족의 영향을 통해 결정하게 되는 이유가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나.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의 특성

학교생활 적응 특성에 대해 면담 참여자들은 학교생활의 특성으로 ‘교우관계 및 공동체 의식’, ‘대안학교의 긍정적인 문화수용’, ‘교사, 학생의 신뢰’,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기’, ‘리더십’, ‘학교에 대한 기대감’, ‘함께하는 학교생활’, ‘교육방법’, ‘다양한 프로그램’, ‘학업의 자율성’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면담 참여자들은 학교생활 적응에 필요한 요인으로 공동체라는 의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와 친밀감을 표시하였고, 편안한 교우관계를 위해서는 친해지기 위한 노력과 교우관계의 중요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박신웅(2010)의 연구 결과에서도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은 교우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면담 참여자들은 대안학교를 입학하기 전 학교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과

입학 후에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재미있는 수업환경으로 학교의 긍정적인 문화를 수용할 때 교사 및 동료들과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면담 학생들은 교사와 학생의 신뢰를 통해서 서로 배려하며, 상호 존중하는 관계가 이루어질 때 학교생활을 더 잘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상필(1990), 김용래(1993), 임정순(1993), 유윤희(1994), 조은희(2007)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 학생의 역할에서 면담 학생들은 열린 마음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상대에 대한 관심 분야를 공유하며 지내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지연(2012)의 연구에서도 적극적 마인드를 가진 학생들이 학교생활 적응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끌어 가는 리더십과 자신이 선택에 대해서 책임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면담 학생들은 처음 학교에 입학할 때 대안학교에 대한 설렘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학교에 대한 기대감으로 배울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여 배움에 대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는 부분에서는 학교생활에 만족하며 바른 생활교육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평가해 보는 과정들에 대한 주체적인 생활과 교사 및 학생들과 함께 기숙사 생활을 통해서 사회생활의 배움이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는 부분으로 나타났다. 안봉선(2006)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안학교의 교육 운영과 편제에 있어 교과 중심의 교육이 아닌 학교 철학과 학생의 흥미와 수준에 기초하여 교과목을 편성하고, 내용 중심의 교과보다 활동과 생활 영역에 따라 교육과정과 활동이 계획되는 대안학교의 교육 운영의 특성이 나타났다. 연구자가 조사한 대안학교의 면담 학생들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면담 학생들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공부와 교사의 적극적인 멘토링 교육방법을 통해서 진로와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생활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학업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자신의 진로와 연결된 다양한 프로그램의 경험을 통해서 학업과 생활적인 부분에서 만족을 하며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수업을 선택해서 원하는 공부를 통해 자기개발을 할 수 있고, 배우고 싶은 분야에서 자기 주도 학습을 하며 교사의 지속적인 조언으로 자율적인 수업과 교육과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대안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특성으로 ‘교우관계 및 공동체 의식’, ‘대안학교의 긍정적인 문화수용’, ‘교사, 학생의 신뢰’,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기’, ‘리더십’, ‘학교에 대한 기대감’, ‘함께하는 학교생활’, ‘교육방법’, ‘다양한 프로그램’, ‘학업의 자율성’ 등의 10가지 특성을 알 수 있었지만, 이 중 ‘교우관계 및 공동체 의식’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요인으로 가장 강하게 나타났으며,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기’는 학생의 역할에서 강하게 표출되었다.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학교생활’이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는 부분에서 주요 부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으로 긍정적인 학교생활의 만족감을 느끼며 교사 및 학생들과 조화로운 관계 유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학생들이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들 간의 만족스러운 관계 유지를 위해 다양한 학교생활 적응 프로그램, 교육방법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욕구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 대안학교 학생들의 진로 준비 행동의 특성

학생들의 진로 준비 행동 특성에 대해 면담 참여자들은 진로 준비 행동의 특성으로 ‘자신의 진로찾기’, ‘동기부여 및 자신감’, ‘부모님의 지지’, ‘진로 찾기에 대한 노력’, ‘목표에 대한 노력’, ‘진로에 대한 정보검색’, ‘새로운 경험의 도전’, ‘다양한 프로그램의 경험’, ‘학업의 자율성’, ‘자기 주도적 학습’, ‘공동체와 종교사상’, ‘자신의 자아실현’, ‘타인에 대한 존중’, ‘진로에 대한 기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면담 참여자들은 학생의 진로 준비 행동에 필요한 주요 요인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학업에 대한 준비와 좋아하는 것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전들을 통해서 많은 걸 느끼는 다양한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이선하(2013)의 연구 결과와 같이 교사의 진로에 대한 지속적인 질문을 통해서 진로 준비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동기부여와 자신이 하고 싶은 목표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진로 준비과정에 대해서 자신을 믿어주는 부모님의 열린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 준비 행동을 위한 학생의 역할에서는 자신의 진로에 확신이 있을 때까지

다양한 자료들을 찾아보고 궁금해 하며 적극적인 진로 찾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목표에 대한 꾸준한 노력과 호기심을 가지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정보 검색을 하고,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통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진로 준비 행동에 대한 도움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 만남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한 진로 탐색으로 자신의 적성과 맞는 진로를 발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진로를 결정하는데 철학이나 경제학 또는 심리학 등의 학업의 다양한 교육내용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했고, 직접적인 체험을 통한 배움이 없어도 진로 정보에 대한 자료 획득에 간접적인 체험이 진로 준비에 도움으로 나타났다. 여러 교과 교사와 친구들과 즐겁고 자유로운 수업 분위기로 자신의 공부와 진로 준비를 격의 없이 할 수 있었고, 수업이 없는 “공강”이라는 시간을 이용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서 자신의 진로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고 원하는 수업에 대한 선택과 결정을 통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수업 환경과,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 함께 할 수 있는 교사와 친구들, 그리고 신앙적으로 견고한 마음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한 방향이나 꿈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운정·오민아·황소리(2018)의 연구 결과인 진로 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진로 탐색이 이루어지고 이를 자신의 주도하에 진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에 작용하는 외적 요인으로 교사와 친구, 부모 등의 외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면담 참여자들은 진로와 관련해서 졸업 후 성취감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재미와 행복 추구를 원하고, 대안학교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의 사회생활을 하는데 자신의 발전, 그리고 졸업 후에 설렘의 마음가짐으로 진로의 대한 깊은 고민과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타났다. 친구들과 의견이 달라도 이해 및 배려와 포용을 할 수 있고, 대안학교에서 배웠던 사랑과 나눔으로 베풀 수 있는 마음, 타인에 대한 존중이 사회에서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대안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의 진로 준비 행동 특성으로 ‘자신의 진로

찾기’, ‘동기부여 및 자신감’, ‘부모님의 지지’, ‘진로 찾기에 대한 노력’, ‘목표에 대한 노력’, ‘진로에 대한 정보검색’, ‘새로운 경험의 도전’, ‘다양한 프로그램의 경험’, ‘학업의 자율성’, ‘자기 주도적 학습’, ‘공동체와 종교사상’, ‘자신의 자아실현’, ‘타인에 대한 존중’, ‘진로에 대한 기대’ 등의 14가지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 중 ‘자신의 진로 찾기’는 진로 준비 행동에 필요한 요인으로 가장 강하게 나타났으며, ‘진로 찾기에 대한 노력’은 학생의 역할에서 강하게 표출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경험’은 진로 준비 행동에 도움을 주는 부분에서 주요 부분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진로와 관련해서 졸업 후 성취감으로는 ‘자신의 자아실현’이 강하게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과내·외에서 진로 탐색 및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준비로 노력하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교과뿐만 아니라 진로 상담 및 진로 탐색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확대되고 개발·운영됨으로써 진로에 관련된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적용해야 함을 시사한다.

3. 결론 및 제언

가. 결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내린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요인으로 주변의 권유보다는 대안학교의 비전과 철학을 이해하고, 스스로 대안학교가 좋아서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 및 학교, 사회에서 학생들이 받아들이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대안학교에 대한 교육적인 자료와 대안교육이 추구하는 교육이념과 가치, 다양한 문화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학생들이 뚜렷한 주관으로 선택할 수 있고, 자신의 올바른 교육적 가치관과 성취욕구에 대한 만족감을 위해서 대안교육에 흥미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대안학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릴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안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교우관계 및 조화로운 학교생활의 만족감을 느끼고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교생활 적응 프로그램과 교육 방법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학생들이 열린 마음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상대에 대한 친밀감 표시와 관심 분야를 공유하며, 공동체 의식과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바른생활 교육을 통한 열린 마음으로 친근하게 다가가고, 학생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지를 통한 믿음과 학생들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으로 좋은 스승의 역할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는 편안한 교우관계와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 줄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학생들의 수준과 진로에 맞는 적극적이고 다양한 교육 방법, 그리고 학생들의 진로와 연결된 다양한 프로그램의 경험을 통해 학교생활에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대안학교와 교사는 학생들의 진로 준비 행동을 촉진하고 진로 탐색과 계획, 실천에 대한 노력을 통해 스스로의 진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과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경험을 유도하는 직·간접적 교육프로그램들을 개발·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목표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으로 자료 찾기, 정보 검색 등의 적극적인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진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스스로 진로 탐색에 대한 꾸준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진로 고민에 대한 경청과 진로 준비에 대한 동기부여 및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조력자 및 촉진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는 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진로 선택 경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의 기회 제공과 이로 인한 진로 탐색의 수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나. 제언

이상의 제주지역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및 진로 준비 행동 특성에 대한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선정할 때 표집 방법 중 확률적 표집 방법이

아니라 임의적인 선택으로 면담 대상자를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내용을 제주지역 대안학교 전체 학생들의 대안학교 선택이유와 학교생활 적응 및 진로 준비 행동 특성을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후속 연구는 제주지역 전체 대안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단의 성격과 규모를 정확히 규정하여 깊이 있고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대안학교를 선택한 요인과 학교생활 적응 및 진로 준비 행동 특성에 대해 학생들의 심층 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의 면담 내용만을 채택하여 분석하였고, 이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사와 학부모의 면담은 제외하고 결론을 도출하였기 때문에 학생, 교사, 학부모의 다양한 관점을 통합하여 연구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분석함으로써 대안학교를 선택한 요인과 학교생활 적응 및 진로 준비 행동 특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현재 제주지역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진로 준비 행동 특성 연구에 있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중요하지만 대안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대한 사례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대안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여 진로 준비 행동 특성을 밝힐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원덕(2009). 성취동기, 직업가치, 진로장벽이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자은(2000).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 적응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교육학사전편찬위원회 (1965). 교육학사전. 서울 : 대한교육연합회
- 김복락(2009). 대안학교를 선택한 학부모 교육열의 특성에 관한 연구 - 종일제 대안학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혜리(2017). 대안학교의 교육 특성과 대안교육 발전 방안,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김현진(2001).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귀인성향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준비 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계현(1995). 상담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미영(1995).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일상 스트레스 대처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애(1994). 사회적지지 자기 지각과 자아방어기제 불안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리(2005). 부모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숙영(1997). 중학생의 학교적응, 학업성취, 정서 및 문제행동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경희(2001). 학교 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적응교육 프로그램 개발, 생활과학연구, 5, 81-92.
- 문은식(2003).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관련된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은식(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관련 변인의 탐색적 고찰. 교육발전논

총, 23(1), 153~167.

- 문상근(2005). 진로결정 수준, 진로 미결정 유형과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 실업계와 인문계 고등학교의 비교.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지현(2017). 특성화고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서울특별시 A특성화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완성(2003). 고등학생 대상 진로준비 행동검사 개발 및 타당화. 교육방법 연구회, 15(2), 121-143.
-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용현(1982). 성취동기 육성의 교수방안. 서울:교육출판사.
- 박아청(1999). 교육심리학. 서울: 교육과학사.
- 손은령(2001).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미령(2005). 부모의 정서적 방임과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은희(1999). 대안학교 교육과정의 실태 및 특성 분석, 석사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신혜영(2003). 대안학교 학생의 진로태도 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심원희(2003).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과 자녀부적응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영복(1984). 적응 및 부적응 행동의 특징과 관계 변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혜경(2008). 희망, 부모지지, 진로장벽이 고등학생의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순미, 유영주(2003). 자아존중감, 가족의 건강성,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농촌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9), 121-134.
- 어주경(1999).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원용진(1994). 학습자의 귀인성향과 학업성적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연(2012).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 수도권 위탁형 대안학교와 도시형 대안학교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진목(2019). 대안학교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 학교급별 인성 수준을 바탕으로, 석사학위 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지애(2016). 전공선택동기와 직업선택 및 직업결정요인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효정(2002).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 태도와 자아존중감과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선·나승일(2011).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 변인. 한국농업 교육학회,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 이성식(2007). 여대생이 인식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인과모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성애(2006).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차이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승희(2002). 학과, 학부제와 개인 집합주의 성향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과 조직몰입.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라(2001).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지지체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근원(2008). "우리 아이가 "대안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노동사회, 46-54.
- 임경혁(1994). 학급환경, 학업성취,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경문(2005).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장호성(1987). 자아개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홍훈(2017). "새로운 대안학교 패러다임으로서 양업고등학교의 사례 연구." 국

- 내박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 장병하(2003). "가족의 대안학교 선택요인." 국내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 전다솔(2018). 대안학교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 준비 행동과 직업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현정(2019). 학업중단위기 청소년들의 위탁형 대안학교 위탁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석사논문,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영숙·신민섭·설인자(2001). 청년심리학. 서울 시그마플러스.
- 정유진(1999). 청소년 학교생활 적응의 관련 변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효경(2009). 여대생의 진로장벽과 자기격려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지형(2017).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의 경험과 그 의미,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조지혜(2007). 성취동기, 직업가치, 진로장벽이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이레(2010).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지지와 진로결정 효능감이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문정(2006). 아동의 부, 모, 또래 애착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보람(2008).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한영숙(2005).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 의사소통 유형과 학교적응의 관계.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7(3), 71-82.
- Mills, J. E. (2005). 교사를 위한 실행 연구(강성우 외 공역). 서울: 우리 교육.

【ABSTRACT】

Characteristics of Students' Adaptation to School Lif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Jeju Alternative Schools

Kang Han-ho

Department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 Educational Consulting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Jin Gu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eal the reasons for choosing alternative education or alternative schools for students at alternative schools in Jeju and the characteristics of school life adapta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The research issues to achieve this research objective were. First, what factors do students reject institutional schools and choose alternative schools? Second,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students in alternative schools' adaptation to school life? Third,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alternative school students?

This study was conducted on six students and one graduate by arbitrarily selecting two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and one unauthorized alternative school in Jeju. The research period was from June 2020 to May 2021, and it was conducted as a qualitative study on the reasons for students' choice of alternative schools, adaptation to school lif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haracteristics. To understand these characteristics, we recorded and transcribed the data collected through the first in-depth interview and then wired and wireless phone and text to write field notes, and approached the

research problems in the order of comprehensive analysis. The conclusions obtained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factor in choosing alternative schools, students should understand the vision and philosophy of alternative schools rather than recommendations from around them, and create social conditions so that they can choose alternative schools because they like them. To this end, educational materials on alternative schools and information on educational ideas, values, and various cultures pursued by alternative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continuously so that students can accept and feel the need in home, school, and society. It is necessary to support a systematic system to inform students of various information about alternative schools so that they can choose under distinct supervision and have interest and expectations in alternative education for their satisfaction with their correct educational values and desire to achieve.

Second, in order to ensure that students who choose alternative schools adapt to school life properly, various school life adaptation programs and educational methods should be implemented to feel and maintain positive friendship and harmonious school life. To this end, conditions should be created so that students can actively approach each other through an open mind, share areas of intimacy and interest, and show a sense of community and responsible leadership. Teachers need to approach students with an open mind through proper life education so that they can adapt well to school life, and try to act as good teachers with faith through active support and respect for students so that they can trust them. In addition, schools should strive to create an environment that can instill a sense of community with comfortable friendship, active and diverse educational methods suitable for students' levels and careers, and to provide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Third, alternative schools and teachers should develop and operate direct and indirect education programs that provide various career education,

opportunities, and induce new experiences so that students can achieve their career goals through career exploration, planning and practice. To this end, conditions should be created so that students can actively search for data and search for information out of curiosity and curiosity about their career goals. Teachers should serve as assistants and facilitators to listen to career concerns, motivate and increase confidence in career preparation so that students can make steady efforts to pursue career goals on their own. In addition, schools should provide opportunities for various curriculum and educational programs for students to experience career choice directly or indirectly, and thus create a class environment for career exploration.

Based on the conclusion from above, some suggestions for subsequent studies are as follows.

First, in this work, when selecting subjects, we determine the interviewees by arbitrary choice rather than probabilistic method of sampling. Therefore, there is a limit to generalizing the research's contents to the reasons for all students' choice of alternative schools in Jeju and the characteristics of school life adapta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refore, it is hoped that follow-up studies will accurately define the nature and size of the population for students from all alternative schools in Jeju and analyze it in depth and various aspects.

Second, this study was conducted as a qualitative study through in-depth interviews of students on the factors of choosing alternative schools and the characteristics of school life adapta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this process, only the interview contents of students were adopted and analyzed, and conclusions were drawn except for interviews with teachers and parents, which could affect them, so there are limitations that have not been studied by integrating various perspectives of students, teachers and parents. Therefore, we hope that future studies will expand and analyze the subjects to conduct research that can further interpret the factors selected for alternative schools

and the characteristics of school life adapta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inally, this study was conducted on students currently attending alternative schools in Jeju. Research on enrolled students is also important in the study of career-ready behavior characteristics, but case studies are needed for students who graduated from alternative schools. Therefore, future studies need to characterize career-ready behaviors by adding analysis of students who graduate from alternative schools.

** Key words: Alternative Education, Alternative Schools, Adaptation to School Lif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Qualitative Research*

<부록 1> 연구 참가 동의서

제주지역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및 진로준비 행동 특성에 관한
연구 참가 동의서

안녕하세요.

먼저 본 연구에 참여해 주신 학생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연구자는 석사학위 논문의 과제인 ‘제주지역 대안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및 진로준비 행동 특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과의 1회에 걸쳐 대안학교 선택요인 관련, 학교생활 적응, 진로준비 행동 특성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할 것입니다.

본 연구에 응답하고 수집된 모든 정보는 무기명으로 처리될 것이며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 정보는 누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연구결과는 학문적인 조건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리며, 연구의 결과는 요청에 의해 복사본을 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행정 및 교육컨설팅 전공
지도교수: 양 진 건
연구자: 강 한 호

----- <절 취 선> -----

본인은 제주지역 대안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및 진로준비 행동 특성에 관한 연구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은 본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대안학교 관련 요인에 관한 인터뷰 내용과 연구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학생 이름: (인)

<부록 2> 제주지역 대안학교 학교생활 적응 및 진로 준비 행동 특성에 관한 연구 인터뷰 항목

「제주지역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및 진로 준비 행동 특성에 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행정 및 교육컨설팅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제주지역 대안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및 진로준비 행동 특성에 관한 연구를 학생과의 인터뷰를 통해 조사해 보고자 합니다.

질문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30~40분 정도이오니 학생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질문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인터뷰해주신 내용은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 될 것이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행정 및 교육컨설팅 전공
지도교수: 양진건
연구자: 강한호

※ 제주지역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및 진로 준비 행동 관련 연구 질문 목록

구분	질문내용
대안학교 선택 요인	◦ 학생들이 대안학교를 선택하게 된 주요 요인은 무엇입니까?
학교생활 적응	◦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하기 위한 학생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 대안학교의 어떠한 부분(목표, 자율성, 교육내용, 교육방법, 생활지도 등)이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로준비 행동	◦ 학생의 진로준비 행동에 필요한 주요 요인은 무엇입니까? ◦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학생의 진로준비 행동을 위한 학생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 현재 교육과정 또는 교육 프로그램이 학생의 진로준비 행동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대안학교를 졸업한 후 학생들이 진로와 관련해서 무엇을 성취하기를 바랍니다니까?
	◦ 대안학교를 졸업한 후 학생들이 진로와 관련해서 무엇을 성취하기를 바랍니다니까?

